

수능 아침 머리를 뉘뉘하게 해 줄...

굿모닝! 국어!



국어 논술 학원

 599-6555

2020 수능대비 굿모닝 국어

- 구조도는 표지에 그린다
- 1눌러 읽는다. 2무릎을친다. 3별표를 고친다.
- 프린트 상태 확인 시간에 화작문 문학 비문학을 살피며 유형 제시문 개수 순서 등을 확인한다.
- 화작문 20분 (너무 시간을 빨리 풀면 실수가 나온다)
- 문학 25분 (ebs 연계 작품)
- 비문학 30분 (시간이 없다면 과감하게 2+1 전략을 사용한다.)
- 문제 풀다가 막히면 별표를 치고 넘어간다.

1 화작문

- 제시문을 먼저 읽고 문제 푸는 것이 좋다.
 - 정보 중심 독해를 한 후 의도를 파악한다.
 - 화법 첫 번째 제시문의 경우 정보 중심의 독해를 한다. 요약형 구조도를 그린다. 주머니 3개정도
 - 화법 두 번째 제시문의 경우 작문과 함께 출제 가능하다. 문제 풀이 순서를 정하고 읽는다.
더해서 화법제시문의 경우 두명 이상의 화자가 등장하고 3개 정도의 화제를 중심으로 끊어 읽는다.
 - 문법 제시문에서 고전 문법과 연계되어 나올 가능성이 크다.
 - 음운변동문제 ① 쌍은 교체 ② 안보이면 ㄴ 첨가
 - 용언은 무조건 '다니고' 활용시켜서 기본형 만들고 시작
 - <주어> 서술어 무지개 만들고 풀기 시작!!
 - 3점짜리 문제의 경우 ① 함정이 있거나 ② 시간을 쓰게 만든다.
-
- 눌러 읽고 무릎치기를 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한다.
 - @ 화작은 무조건 눌러 읽는다. 20분 다 쓸 생각으로 풀어라.

2 문학

- 현대시는 모르는 시를 읽어 내는 능력(구조도 독해법) 이 중요하다.
당황하지 말고 서술어를 잘 본다. 누가? 누가? 누가? 화자와 대상을 정확히 구분하려 노력한다.
- 현대 소설의 경우 구조도 독해를 한다. 1인물 갈등 2 장면으로 구성확인 3 주제 혹은 인물에 대한 이해 4 표현
인물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며 왜 저런 행동과 심리가 나오는지 공감하려 노력한다.
개성적 인물(삼수) 입체적 인물(서희) 갈등의 원인 파악할 것!!! 왜 뺨을 맞았는지, 왜 맞고 웃는지 확인할 것!
- 고전소설의 경우 인물을 중심으로 객관적 상황 파악을 중심으로 독해한다.
누가 뺨을 몇 대 맞았는지 중요!
제시문에 나온 인물은 주변 인물이라도 정확하게 파악한다.
- ebs 연계 작품의 경우 나온 부분이더라도 다시 읽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문제 풀다가 막히면 다시 읽어라.
초조해지지 말자.
- 고전 운문의 경우 ebs반영이 관건이다. 만약 모르는 것이 나오면 차분하게 구조도를 그린다.
- 그동안 ebs 정리한 작품을 떠올리며 읽는다.
- 무릎 치기!!! 라는 답의자격을 기억한다. 만약 무릎이 안쳐지면 별표를 치고 나중에 다시보도록 한다.

3 비문학

- 3개의 제시문을 영역별로 확인한다. 한 지문은 1세대 구조도가 나올 수 있다.
- 나머지 두 제시문 앞부분에 배경지식을 설명하는 문단이 있을 수 있다.
- 시간이 부족하다면(30분) 2지문을 그려 풀고 한지문은 빠르게 날려 읽고 푼다. 2+1 전략
- 킬러 문제는 제시문세트의 마지막에 푼다. 너무 어려우면 45번까지 돌리고 마지막에 푼다.
- 미시독해를 기본으로 그리고 거시 독해를 추가한다. 미시 구조도는 반드시 나온다. 기다리고 있다가 당황하지 말고 바로 적용하자.
- 제시문을 읽으면서 혹은 구조도를 그리면서 최대한 답의자격 9를 확인하려 노력한다.
- 짝을 때 답의자격으로 짝는다

시험 전날에 할 일

시험 아침에 할 일

시험 시작 직전에 할 일

시험 보면서 주의 할 점들

화작 1세트 18 09

안녕하세요? 영양 성분 표시 제도와 관련해 강연을 하게 된 ○○보건소의 △△△입니다. 2018년부터는 개정된 영양 성분 표시 방법으로 식품의 영양 정보를 표시하게 되는데요, 알고 있나요? (학생들의 대답을 듣고) 모른다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일부 가공 식품에 영양 정보를 표시하는 영양 성분 표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좀 더 쉽게 영양 정보를 확인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영양 성분을 표시하는 방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전과 후의 표시 도안을 같이 보시죠. (시각 자료를 보여주며)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대상이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인 점은 이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표시하는 기준은 달라졌습니다. 개정 전에는 한 번에 섭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양인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영양 성분의 함량을 표시했는데요, 업체마다 1회로 보는 양이 달라서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영양 성분의 함량을 표시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단, 한 번에 먹기 힘든 대용량 제품은 별도의 표시 기준을 두기로 했습니다.

영양 성분의 표시 순서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개정 전에는 에너지 공급원순으로 표시했는데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고 국민 건강상 중요해진 성분들은 순서를 위로 올려 표시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로 나트륨의 표시 위치가 개정 전보다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 국민이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어 1일 나트륨 섭취량의 관리가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본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1일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고량의 2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열량의 표시 방식도 바뀌었는데요, 열량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이를 확인하기 쉽도록 다른 성분들과 분리해 열량을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1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지 않았던 열량, 당류, 트랜스지방 중에서 당류는 이번에 개정되면서 그 비율을 표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1. 위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강연 중간 중간에 자신이 말한 내용을 요약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관련 기관의 발표 자료를 인용하여 자신이 언급한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③ 강연 대상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사례로 들어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④ 강연 대상을 친숙한 소재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대상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 ⑤ 청중의 질문에 답을 함으로써 강연 내용과 관련된 청중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다.

3. 강연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학생의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영양 성분 표시 제도가 일부 가공 식품에 적용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을 결정하나요?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영양 성분 표시 방법을 바꿨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③ 의무적으로 함량을 표시해야 하는 성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비타민이나 칼슘 등은 왜 의무 표시 대상이 아닌가요?
- ④ 대용량 제품의 경우에는 별도의 표시 기준을 둔다고 하셨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 ⑤ 우리나라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 권고량의 2배 수준이라고 하셨는데, 그 권고량은 얼마인가요?

2. 다음은 강연자가 사용한 시각 자료이다. 시각 자료를 보며 강연을 들은 학생이 떠올린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개정 전 표시 도안>

영양 성분		
1회 제공량 00(00g) 총 00회 제공량(00g)		
		% 영양 성분 기준치
1회 제공량당 함량		
열량	000kcal	
탄수화물	00g	00%
당류	00g	
단백질	00g	00%
지방	00g	00%
포화지방	00g	00%
트랜스지방	00g	
콜레스테롤	00mg	00%
나트륨	00mg	00%

* % 영양 성분 기준치: 1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

<개정 후 표시 도안>

영양 정보		
		총 내용량 00g
		000kcal
① 총 내용량당		1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② 나트륨	00mg	00%
③ 탄수화물	00g	00%
④ 당류	00g	00%
지방	00g	00%
트랜스지방	00g	
포화지방	00g	00%
콜레스테롤	00mg	00%
단백질	00g	00%

1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2,000kcal 기준이므로 개인의 필요 열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① ①은 영양 정보를 확인할 때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함량 표시 기준이구나.
- ② ②는 에너지 공급원순에 따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표시한 것이구나.
- ③ ③은 소비자의 관심도와 국민 건강상의 중요도가 반영되어 이전과 표시 위치가 달라졌구나.
- ④ ④은 소비자들이 확인하기 쉽도록 다른 성분들과 위치를 구분해 표시한 것이구나.
- ⑤ ⑤은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성분으로 추가되면서 1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도 표시하게 되었구나.

정답: 1. ② / 2. ⑤ / 3. ②

화작 1세트 18 06

(가)

학생 1 : 안녕하세요? 학생 발명가이신 선배님께 궁금한 게 많 습니다. 먼저 발명이 무엇인지부터 말씀해 주세요.

발명가 : 네. 발명은 전에 없던 기술이나 물건을 새롭게 생각하여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학생 2 : ㉠ 새롭게 생각하여 전에 없던 기술이나 물건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은데요, 선배님의 발명품이 궁금해요.

발명가 : (발명품을 꺼내며) 네, 이걸 보여 드리죠. 설탕, 소금과 같은 양념을 담는 통들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해 곤란한 때가 많았어요. ㉡ 그래서 통의 뚜껑과 본체를 여러 개로 나눈다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냈습니다. 통 하나에 여러 가지 양념을 담을 수 있게 말이죠.

학생 2 : 간단하면서도 유용하네요. 저도 발명을 하고 싶은데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아서 힘들어요. 도움이 될 만한 게 있다면 알려 주세요.

발명가 :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이것은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 체험 단계에서는 발명의 주제가 되는 물건을 탐색하며 발명에 대한 호기심을 가져 보고, 인지 단계에서는 그 물건에 담긴 과학적 원리를 학습합니다. 이 두 단계를 통해 주제가 되는 물건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발명 단계에서는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물건을 개선할 아이디어를 창출합니다. 이때 도움을 얻기 위해 기존의 다른 발명품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학생 1 : 아직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발명가 : 좋습니다. (가방에서 필통을 꺼내며) 필기구로 말씀 드리죠. 여기 연필, 볼펜, 자가 있지요? 필기구를 발명 주제로 정했다면, 체험 단계에서는 필기구만 골라 만지고 분해하며 호기심을 가져 봅니다.

학생 2 : ㉣ 그럼 다음 단계에선 과학적 원리를 공부하겠군요.

발명가 : 네, 인지 단계에서는 필구에 담긴 과학적 원리를 공부하지요. 다음으로 발명 단계에서는 필기구를 개선할 아이디어를 창출합니다. 아까 기존의 다른 발명품을 참고한다고 했는데요, ㉤ 이렇게 하면 자가 발전 기능이 있는 손전등에 전자기 유도 법칙이 이용됐다는 것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내용을 통해 빛을 내는 볼펜이라는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지요.

학생 1 : 그렇군요. 끝으로 미래의 발명가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발명가 : 주변 사물에 호기심을 갖고 개선할 점이 있는지 살펴 보세요.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개선 방법을 찾아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입니다.

학생 1,2 : 네, 감사합니다.

[학습 활동]

1.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발명 동아리 소식지에 글 쓰기
2. 상호 평가를 통한 고쳐 쓰기

(나)

학생들은 발명을 어려워한다. 그 이유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이다. 이것은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로 인해 쉽게 발명에 다가설 수 있게 한다. 그렇다면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은 어떤 단계로 이루어질까?

먼저 체험 단계에서는 발명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한다. 예를 들어 자전거라는 발명 주제가 제시되면 자전거를 눈으로 살펴보고 손으로 만진다. 그리고 직접 자전거를 타 보이기도 하고 자전거를 분해해 보이기도 하면서 탐색된다.

그 후 인지 단계에서는 자전거에 적용된 과학적 원리를 학습한다. 커브를 도는 쪽으로 자전거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원심력 때문이고, 울퉁불퉁한 길을 부드럽게 달릴 수 있는 것은 타이어의 탄성력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친구들과 이야기 하면서 발명 주제인 자전거를 깊이 이해하게 된다. 이때 자전거를 탔던 즐거운 추억을 떠올려 감상문을 써 보는 것도 좋다.

마지막으로 발명 단계에서는 자전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것의 개선 방안을 생각한다. 즉 자전거가 아닌, 자동으로 공기가 채워지는 튜브를 참고해 물에 뜨는 자전거라는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개선 방안을 생각할 때는 기존의 다른 발명품을 참고할 수 있다.

4. ㉠~㉣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상대방의 말을 재진술하며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설명 대상에 대한 과학적 상식을 제시하여 상대방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③ ㉢: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요구를 상대방에게 전하고 있다.
- ④ ㉣: 상대방이 언급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내용을 예측하고 있다.
- ⑤ ㉤: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앞의 발화를 보충하고 있다.

5. 다음은 (가)에 참여한 ‘학생 1’이 (나)를 쓰기 위해 ‘학생 2’와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가)와 (나)를 고려할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학생 2: 선배님의 말씀을 활용해서 글을 쓴다고 했잖아. 어떤 내용을 글에 포함할 거니?

학생 1: 선배님은 _____ ㉠

- ① 발명품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셨지. 나도 발명 도중에 겪었던 어려움을 글에 포함해야겠어.
- ② 주변 사물에 호기심을 갖고 개선점을 찾아보라고 하셨지. 나는 개선이 필요한 주변 사물의 문제점을 글에 포함해야겠어.
- ③ 모형의 각 단계를 양념 담는 통으로 설명하셨지. 나는 다른 물건을 이용해 모형을 설명하는 내용을 글에 포함해야겠어.
- ④ 기존의 다른 발명품을 참고할 수 있다고 하셨지. 나도 기존의 다른 발명품을 참고하여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내용을 글에 포함해야겠어.
- ⑤ 발명은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셨지. 나도 창출한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새로운 물건을 제작, 완성하는 과정을 글에 포함해야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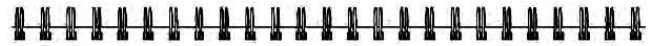
정답: 4. ② / 5. ④ / 6. ④ / 7. ①

6. 다음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나)에 내용을 추가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 설명문의 끝부분을 쓸 때에는 먼저 중심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요약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심 내용이 지닌 의의를 덧붙이며 글을 마무리하면 좋습니다.

- ① 이처럼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은 발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좋은 안내가 될 수 있다. 또한 주위 사물을 꼼꼼하게 관찰하는 태도를 길러 준다.
- ② 이처럼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은 체험, 인지, 발명 단계로 이루어진다. 발명 단계 이후에는 체험 단계 이전에 학습한 발명 기법을 떠올리며 아이디어를 창출한다.
- ③ 이처럼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은 주변의 사물들 중에서 발명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제를 선정하면 손쉽게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④ 이처럼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은 체험 단계, 인지 단계, 발명 단계가 순서대로 진행된다. 이 모형의 단계를 따라 하면 쉽게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발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 ⑤ 이처럼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은 발명에 대한 호기심을 떠올리는 체험 단계, 과학적 원리를 탐구하는 인지 단계, 발명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발명 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후에는 아이디어를 구현한 제품을 만드는 적용 단계가 있다.

7. (나)에 대한 ‘학생 2’의 상호 평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생 2’의 평가 내용

잘한 점	비교의 방법을 사용하여 중심 화제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 ①
	글의 흐름이 잘 드러나도록 문단의 앞부분에 순서를 알려 주는 표지를 사용한 점 ②
수정할 점	2문단에서 표현이 어색한 문장을 사용한 점 ③
	3문단에서 글의 흐름과 어긋나는 문장을 사용하여 통일성을 떨어뜨린 점 ④
	4문단에서 앞뒤 문장의 위치를 잘못 배열하여 내용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않은 점 ⑤

화작 1세트 19년 11월 수능

(가) 초고 작성을 위한 메모

- **작문 상황:** 봉사의 날 운영 방식을 글감으로 하여 교지에 글을 게재하려 함.
- **글의 목적:** 예상 독자인 우리 학교 구성원을 설득하는 글.
- **주제:** 봉사의 날 운영 방식을 동아리별 봉사 활동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자료:** 우리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나) 글의 초고

우리 학교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봉사의 날을 지정하여 학급 별로 학교 주변의 환경을 정화하는 봉사 활동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개선 요구가 제기되면서 봉사의 날 운영 방식을 동아리별 봉사 활동으로 전환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이로 인해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서 봉사의 날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우리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 본 결과 실제로 학생들 대다수가 현행 봉사의 날 운영 방식에 대해 만족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그 이유로 참여 의지가 떨어진다는 점을 들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환경 정화 활동과 같이 개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인 방식은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은 동아리별 봉사 활동의 장점으로 진로와 관심사를 [A] 반영한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동아리별 봉사 활동은 진로와 관심사가 비슷한 학생들이 모인 동아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동아리의 특색을 살린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 그 결과 학생들은 획일적인 봉사 활동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봉사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 동아리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일부 학생들의 우려도 있지만, 이 방식은 현행 봉사의 날 운영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청소년기는 육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청소년기에 수행하는 봉사 활동은 청소년들에게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길러 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8. (가)의 사항이 (나)에 반영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글감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드러내기 위해, 봉사의 날 운영 방식이 논의되고 있는 우리 학교 상황을 제시하였다.
- ② 글의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한 과정과 우리 학교에 봉사의 날이 도입된 취지를 제시하였다.
- ③ 예상 독자의 관심을 반영하기 위해, 학교 구성원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 ④ 글의 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현행 봉사의 날 운영 방식의 장점을 병렬적으로 열거하여 제시하였다.
- ⑤ 자료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봉사 활동과 관련한 설문 조사 문항과 조사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였다.

- ① ㉠을 활용해, 현행 운영 방식에 대한 우리 학교 학생들의 만족 여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설문 조사의 결과를 추가해야겠어.
- ② ㉠을 활용해, 현행 운영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족 이유에 봉사 활동에서 보람을 느낄 수 없다는 점을 추가해야겠어.
- ③ ㉠을 활용해, 동아리별 봉사 활동의 도입과 관련한 일부 학생들의 우려에 대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해야겠어.
- ④ ㉠과 ㉡를 활용해, 현행 운영 방식의 문제점으로 봉사 활동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추가해야겠어.
- ⑤ ㉠과 ㉡를 활용해, 동아리별 봉사 활동이 학생들에게 성취 경험을 제공하여 불만족 이유 중 가장 비율이 높은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추가해야겠어.

9. 다음은 [A]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료>

우리 학교 학생 대상 설문 조사 결과

㉠ 현행 봉사의 날 운영 방식에 대한 만족 여부

만족도	비율
매우 만족	17%
만족	15%
보통	9%
불만족	52%
매우 불만족	7%

㉡ 현행 봉사의 날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족 이유 (매우 불만족, 불만족 응답자 대상)

이유	비율
자발성이 떨어짐	51%
보람을 느낄 수 없음	43%
기타	6%

㉢ 교육 전문 잡지 『○○○』

동아리별 봉사 활동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개발한 역량을 봉사 활동에서 발휘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 성취 경험을 제공하므로 봉사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자발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 시간에 봉사 활동 준비를 하는 경우도 있어 동아리의 본래 목적에 맞는 활동이 잘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별도의 봉사 활동 준비 시간을 마련해 주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0. 다음은 (나)를 쓴 학생이 교지 편집부에게 보낸 이메일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목록 | 위 | 아래

답장 전체답장 전달 X삭제 스템신고

보내 주신 검토 의견 중 (㉠)해 달라는 말을 고려해 초고의 마지막 문단을 아래와 같이 수정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청소년기에 수행하는 봉사 활동은 청소년들에게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길러 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동아리별 봉사 활동을 도입한다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봉사 정신을 기를 수 있고 자신들의 진로 관련 역량을 개발하여 자기 성장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 ① 청소년기의 의미는 삭제하고, 청소년기 봉사 활동의 의미는 추가
- ② 청소년기의 의미는 삭제하고, 동아리별 봉사 활동 도입 시 기대 효과는 추가
- ③ 청소년기의 의미는 삭제하고, 동아리별 봉사 활동 도입을 위한 지원 방안은 추가
- ④ 청소년기 봉사 활동의 의미는 삭제하고, 동아리별 봉사 활동 도입 시 기대 효과는 추가
- ⑤ 청소년기 봉사 활동의 의미는 삭제하고, 동아리별 봉사 활동 도입을 위한 지원 방안은 추가

정답: 8. ① / 9. ④ / 10. ②

화작 2세트 20 06

여러분, ‘탈’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저는 며칠 전에 『세계 여러 나라의 탈』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인상적인 탈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발표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던 중 마침 국어 시간에 ‘봉산 탈춤’을 배워서 발표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화면 1을 가리키며) 이 탈의 이름을 아세요? (청중의 반응이 없자) 안동에서 볼 수 있는 탈이에요. (대답을 듣고) 하회탈이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군요. 흔히들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정확히는 하회탈 중 양반탈입니다. ‘봉산 탈춤’의 양반탈과 달리 눈 아래부터 귀 위까지 이어진 선이 눈꼬리와 겹쳐 미소를 만드는데, 단순한 얼굴형에 특별한 장식이나 화려한 색채 없이 눈썹, 눈, 코, 입을 선으로 표현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양반은 냉수 마시고도 이 썩신다.”라는 말에 담긴 허풍과 여유가 동시에 느껴지지 않나요?

(화면 2를 가리키며) 이 탈은 중국의 장수 관우 탈인데요, 무엇이 가장 먼저 보이세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저는 용이 새겨진 복잡한 모양의 관에 시선이 갔습니다. 양반탈이 이마 부분까지만 표현돼 있는 것과 달리 관우 탈은 머리에 쓴 관까지 표현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얼굴이 강렬한 붉은 색이어서 무시무시하면서도 화려한 느낌을 줍니다. 얼굴과 머리 부분을 모두 이용해 관우의 박력과 위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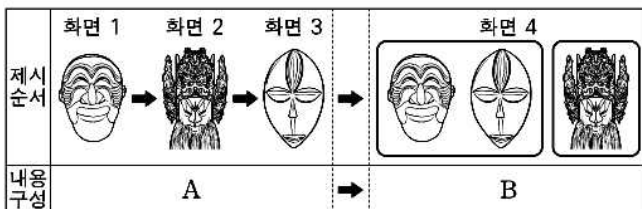
마지막은 아프리카 카메룬의 탈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프리카의 탈은 과장과 생략이 특징입니다. (화면 3을 가리키며) 보시는 것처럼 이 탈도 추상적으로 보일 만큼 과감한 생략이 인상적인데요, 단순한 곡선과 직선으로 표현된 커다란 눈이 작은 코와 대비되어 더 두드러져 보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탈들을 (화면 4를 가리키며)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선을 활용하여 단순하게 표현된 왼쪽 탈들, 화려한 장식에 다소 복잡한 오른쪽 탈이 보이시죠? 이 차이가 탈의 용도 때문은 아닌지 궁금하여 기회가 되면 ‘탈의 용도에 따른 모양’이란 주제로 탐구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조사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도입부에서 발표에 사용될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며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② 수업 시간의 경험이 발표 주제 선정의 동기가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 ③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며 발표 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 ④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고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며 추가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 ⑤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도를 확인하며 마무리하고 있다.

2. 다음은 위 발표에 반영된 매체 자료 활용 계획이다. 발표를 참고할 때 A, B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u>A</u>		<u>B</u>
①	사용된 색채를 중심으로 각각의 탈 소개하기		탈들의 형태상 차이점이 부각 되도록 구분하여 제시하기
②	형태적 특징을 중심으로 각각의 탈 소개하기		탈들의 복잡성이 대비되도록 유형화하여 제시하기

③	인상적이었던 순서를 밝히며 각각의 탈 소개하기	탈들의 공통점이 드러나도록 순서를 변경하여 제시하기
④	지리적으로 인접한 순서를 밝히며 각각의 탈 소개하기	탈들의 관이 가진 장식성이 대비되도록 제시하기
⑤	표현된 선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각각의 탈 소개하기	탈들의 선의 형태에 따른 분류 기준이 드러나도록 제시하기

3. <보기>는 위 발표를 들으며 떠올린 생각들이다. <보기>의 듣기 활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저 탈이 하회탈인 줄 알았는데, 하회탈의 한 종류였구나. 양반탈 말고 다른 하회탈도 설명해 주겠지?
- 나도 관우 탈을 박물관에서 봤을 때에 정말 화려하다고 생각했었어.
- 발표자가 말한 대로 '탈의 용도에 따른 모양'에 대해 조사해보면 좋을 것 같아.

- ① 발표 내용을 예측하며 능동적인 태도로 듣고 있다.
- ② 발표를 들으며 갖게 된 의문을 해결하며 듣고 있다.
- ③ 발표자가 제안한 탐구 주제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듣고 있다.
- ④ 발표 내용과 관련된 경험을 떠올리며 발표자의 설명에 공감하며 듣고 있다.
- ⑤ 발표를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정보를 활용하여 기존 지식을 수정하며 듣고 있다.

정답: 1. ④ / 2. ② / 3. ②

화작 2세트 20 06

(가) '전통 한옥의 멋' 솔빛 마을이 달라진다
 솔빛 마을, 시청과 한옥 관광지 조성에 합의

시청 측과 솔빛 마을 주민 측은 △월 △일 시청에서 회동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전통 한옥의 가치 전파를 위한 한옥 관광지 조성 사업을 연내 추진하는 데 큰 틀에서 합의했다.

시청 측은 솔빛 마을의 한옥이 타 지역 한옥에 비해 규모가 크고 보존 상태가 양호해 사업 경쟁력이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통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둘레 길 조성, 마을 진입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 측도 사업이 마을 발전과 한옥의 가치 전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옥 관광지로 조성된 인근 ○○마을에서 발생한 과잉 관광 현상이 솔빛 마을에서 되풀이되지는 않을까 걱정했다.

지역 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이래 ○○마을의 마을 소득과 관광객 수는 각각 연평균 약 5%, 7%씩 증가했다. ① 그러나 관광객 수가 마을이 감당할 수 있는 방문 인원의 최대치인 관광 수용력을 초과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각종 문제에 봉착했고, 그에 따라 올해 4월 기준 ○○마을의 토착 거주 인구는 8년 전 대비 12% 감소했다.

주민 측은 ○○마을을 타산지적으로 삼아 예상되는 문제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 이를 시청 측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세부적인 사업 추진 계획을 협의하기 위해 이달 내 추가 협상을 진행한다.

(나) 시청 측: 지난 협상 후 기사를 통해 여러분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우선 주민들의 한옥을 관광객들에게 개방해 주시길 바랍니다. ② 관광객에게 한옥 내부를 직접 관람하는 기회를 제공하면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주민 측: 저희도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옥 내부를 개방하면 주민들의 사생활이 침해받아 삶의 질이 저하될 것입니다. 결국 ○○마을처럼 오랫동안 거주했던 주민들이 떠난 자리가 관광업에 종사하는 외지인들로 채워져, 전통 마을로서의 모습도 퇴색될 것입니다.
 시청 측: 이해합니다. 저희도 모든 한옥을 개방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희망하는 주민들에 한하여 한옥을 개방하되 가능하면 많이 동참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개방을 허락하실 경우에도 예약한 관광객에게만 관람을 허용하고, 한옥 관광 도우미가 동행하여 미개방 영역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우려하시는 비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민 측: 한옥 내부 관람을 않고 골목길 관람만 한다 해도 많은 관광객이 한곳에 몰리면 현재의 마을 여건 상 개방 여부와 상관없이 주민들의 삶이 침해될 것입니다. 많은 관광객이 다닐 만큼 길이 넓지도 않고요. 결국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관광객의 여행 경험의 질이 동시에 악화될 것입니다. [B]

시청 측: 한옥 내부 관람 인원은 매일 일정 수 이하로 제한하고 단체 관광은 마을 관광 에티켓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시간 정보 안내판을 설치하여 관광객의 동선이 분산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③ 이 방법으로 특정 장소에 관광객이 몰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주민 측: 그 정도 계획은 마을의 여건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 봅니다. 그러면 한옥 개방 시간은 오후 5시까지로 제한해 주십시오. 또한 한옥 관광 도우미로 지역 어르신들을 우선 채용해 주십시오. [C]

시청 측: 지역민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채용 건은 수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개방 시간은 늘려 주시길 바랍니다. 야간 개방에 대한 관광객들의 호응이 클 것이므로 관광 산업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④ 그러면 주민들의 소득도 증대되지 않을까?
 주민 측: 개방 시간을 연장하면 주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것을 상쇄할 만한 대가를 얻는다면 주민들이 연장에 찬성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개방 시간 연장의 이득은 관광 산업에 종사하는 일부에 게만 돌아갈 것입니다. 야간 개방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면 시청 측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시청 측: 그러면 야간은 아니더라도 오후 7시까지 개방은 고려해 주십시오. 그 후는 주민들의 생활을 배려하여 관광객들의 방문을 엄격히 제한하겠습니다. [D]

주민 측: 그렇게 하신다면 그 점은 주민들과 다시 상의해 보겠습니다. 대신 관광 산업 발전으로 증대된 세수는 반드시 주민 생활 복지 개선에 사용해 주십시오. 노인 회관 시설 개·보수와 주민 문화 시설 마련에 중점적으로 활용해 주신다면 개방 시간과 관련해 주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

4. 다음은 기자가 (가)를 작성하기 전 취재 계획을 메모한 것이다. (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p>[기사 내용] 솔빛 마을 한옥 관광지 조성 사업 [조사 방법] 관계자 취재, 관련 기관 문헌 자료 수집</p> <p><시청 측과 주민 측 협상 취재> • 사업 추진 목적 및 양측 합의 사항</p> <p><시청 측과의 인터뷰> • 사업 경쟁력에 대한 판단.....㉠ • 사업 추진 계획.....㉡</p> <p><솔빛 마을 주민 측과의 인터뷰> • 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 및 우려 사항.....㉢</p> <p><지역 연구소 자료 수집> • ○○마을 한옥 관광지 사업 관련 통계.....㉣ • 관광지 운영에 따른 피해 경감 사례.....㉤</p>

5. <보기>는 ㉠의 초안이다. <보기>를 ㉠과 같이 수정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그러나 관광객 수가 마을의 관광 수용력을 초과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각종 문제에 봉착했고, 그에 따라 올해 4월 기준 ○○마을 토착 거주 인구는 8년 전 대비 12% 감소했다.

- ① 독자의 관심도를 고려하여 인과 관계에 따라 정보를 배열하기 위해
- ② 독자의 이해도를 고려하여 주요 개념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기 위해
- ③ 글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주제와 관련이 없는 정보를 삭제하기 위해
- ④ 글의 응집성을 고려하여 맥락에 적합하지 않은 담화 표지를 수정하기 위해
- ⑤ 글의 가독성을 고려하여 긴 문장을 두 문장으로 나누어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

정답: 4. ⑤ / 5. ② / 6. ④ / 7. ②

6. 다음은 솔빛 마을 주민 측에서 협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협상 계획서의 일부이다. 다음을 참고하여 [A]~[E]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논의할 내용	세부 내용	대응 전략
⋮	⋮	⋮
과잉 관광 문제 - 관광 수용력을 중심으로	개인 생활 침해, 공동체 구성원의 이탈과 같은 상황에 대처하지 못할 우려.....㉦	
	관광객이 기대하는 관광 경험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우려.....㉧	
	동시에 방문할 수 있는 관광객 규모를 넘을 우려.....㉨	
지역민을 위한 현안	일자리 창출.....㉩	
	생활 복지 개선.....㉪	
⋮	⋮	⋮

- ① [A]에서는 ㉦와 관련된 문제 상황을 언급하며 상대측의 요구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 ② [B]에서는 ㉧와 관련된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상대측 의견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 ③ [C]에서는 ㉨와 관련된 상대측 계획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추가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 ④ [D]에서는 ㉩에 대한 입장을 드러내면서 상대측에 그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 ⑤ [E]에서는 ㉪에 대한 필요성을 드러내며 상대측의 요구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7. (나)의 담화 흐름을 고려할 때, ㉠~㉣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논의할 대상을 제한하여 상대방에게 선택할 것을 권유하는 발화이다.
- ② 예상되는 효과를 언급하며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는 발화이다.
- ③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는 의견을 가정하며 그 의견의 타당성 여부를 묻는 발화이다.
- ④ 상대방과 공유하고 있는 정보에서 자신이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는 발화이다.
- ⑤ 상대방과 공동으로 기대하는 상황이 발생할 조건을 제시하며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을 부정하는 발화이다.

화작 2세트 20 06

(가)

○월 ○일

환경 동아리 시간에 'PVC가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주제로 특강을 들었다. 특강을 통해 PVC가 플라스틱의 일종이라는 것과 정말 많은 물건이 PVC 재질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심지어 나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필통에도 PVC가 사용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PVC가 환경 문제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 내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었다니! 나 때문에 환경이 오염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래서 동아리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니 친구들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환경 오염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생각에 친구들과 함께 의논을 했다.

(나)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등학교 환경 동아리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귀사에서 제조하는 필통에 대해 건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은 평소 귀사에서 만든 학용품을 자주 구입합니다. 그런데 ㉠귀사의 필통이 몸체는 PVC 재질이고, 지퍼는 철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귀사가 필통의 재질을 개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귀사뿐 아니라 여러 회사에서 학용품에 PVC 재질의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플라스틱 사용량은 세계적으로 많고 그 증가율도 매우 높다고 합니다. 플라스틱을 완전히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겠으나, ㉢환경에 끼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다면 PVC 사용이라도 줄여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사에서 필통의 재질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8. 작문 맥락을 고려할 때,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글쓴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의 글쓰기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 ② (가)에서 언급한 개인의 경험이 동기가 되어 (나)의 사회적 문제 해결의 글쓰기를 이끌어 내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예상 독자의 관심사에 대한 분석이 글쓰기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글쓴이의 주장과 그에 대한 논거가 제시되고 있다.
- ⑤ (가)는 (나)에 비해 글쓴이의 체험을 기록하고 이를 통해 일상을 반성하려는 성격이 두드러진다.

9. <보기>는 (나)에 대한 학생들의 수정 의견이다. <보기>를 참고할 때, (나)에 추가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초고에서는 건의 내용을 언급한 후 글을 읽어 준 것에 감사하는 끝인사로 마무리했잖아. 그런데 글의 설득력을 높이려면 건의 내용을 언급한 후에 건의가 받아들여졌을 때 소비자와 기업 양쪽이 얻게 될 이익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좋겠어.

- ① 재질을 개선한다면 소비자는 질 좋은 PVC 제품을 구매할 기회를 얻게 되고, 귀사는 제품의 재질을 개선하기 전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② 재질을 개선한다면 소비자는 귀사의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자원 재활용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사용량이 줄어들 것입니다.
- ③ 재질을 개선한다면 귀사처럼 환경 보호에 동참하는 기업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소비자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으면서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④ 재질을 개선한다면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하면서 환경 오염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며, 개선하지 않는다면 귀사에 환경 오염에 대한 부담이 돌아올 것입니다.
- ⑤ 재질을 개선한다면 소비자는 귀사 제품을 구매하며 환경 보호를 실천했다는 만족감을 얻을 것이고, 귀사는 친환경 기업이라는 신뢰감을 고객에게 주게 되어 매출이 증가할 것입니다.

10. 다음은 (나)를 작성한 후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를 활용하여 (나)의 ㉠~㉣을 수정·보완하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논문 자료**
 플라스틱은 가공성이 우수하고 저렴하지만 재활용하지 않고 폐기하는 경우에 분해가 되지 않아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 플라스틱은 성분에 따라 PVC, PP, PET 등으로 나뉘는데, 염화 비닐이 주성분인 PVC는 질기고 깨지지 않아 투명 지퍼백, 필통 등에 쓰인다. PVC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첨가하는 프탈레이트는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식품용기, 학용품 등에 사용되는 PP나 음료 병 등에 주로 사용되는 PET는 프탈레이트가 첨가되지 않는다.

㉡ **통계 자료**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kg) 세계 1위~6위 국가>

연도	벨기에	대만	한국	이스라엘	미국	체코
2009	165	125	110	110	85	80
2010	168	130	115	110	90	85
2011	170	135	120	110	95	90
2012	168	135	125	110	95	90
2013	168	135	130	110	95	90
2014	168	135	135	110	95	90
2015	170	140	135	110	95	90

㉢ **보고서 자료**
 <재질에 따른 재활용 정도>

재질	재활용 정도	
	용이함	어려움
플라스틱	PVC	○
	PP	○
	무색 PET	○
	유색 PET	○
철	○	

- ① ㉠: ㉡를 참고하여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려면 필통의 지퍼는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이지만 몸체는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인 것이 문제라고 수정해야겠군.
- ② ㉡: ㉠를 활용하여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함을 드러내려면 PVC로 필통을 만드는 이유가 가격과 가공성 면에서 유리하며 질기기 때문일 것이라는 내용을 추가해야겠군.
- ③ ㉢: ㉡를 활용하여 정보를 정확하게 제시하려면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은 2009~2015년 기간 중 세계 3위에 해당할 만큼 많고 그 증가율도 가장 높았다고 수정해야겠군.
- ④ ㉢: ㉠와 ㉡를 참고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려면 PVC는 재활용이 어려워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제조 공정에서 첨가되는 물질이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야겠군.
- ⑤ ㉢: ㉠와 ㉡를 참고하여 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려면 필통의 재질을 플라스틱으로 유지할 경우에 재활용이 용이하고 프탈레이트가 첨가되지 않는 PP로 바꾸어 달라고 수정해야겠군.

문법 1세트 2020 06

어린 말은 망아지, 어린 소는 송아지, 어린 개는 강아지라고 한다. 이들은 모두 사람들이 친숙하게 기르는 가축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새끼를 나타내는 단어가 모두 '-아지'로 끝난다는 점이 흥미롭다. 그런데 돼지도 혼한 가축인데, 현대 국어에서 어린 돼지를 가리키는 고유어 단어는 따로 없다. '가축과 그 새끼'를 나타내는 고유어 어휘 체계에서 '어린 돼지'의 자리는 빈자리로 남아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어린 돼지를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어린 돼지를 가리키는 고유어 단어가 없을 뿐인데, 이렇게 한 언어의 어휘 체계 내에서 개념은 존재하지만 실제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어휘적 빈자리'라고 한다.

어휘적 빈자리는 계속 존재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채워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휘적 빈자리가 채워지는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 방식은 단어가 아닌 구를 만들어 빈자리를 채우는 방식이다. 어떤 언어에는 '사촌, 고종사촌, 이종사촌'에 해당하는 각각의 단어는 존재하지만, 외사촌을 지시하는 단어는 없다. 그래서 그 언어에서 외사촌을 지시할 때에는 '외삼촌의 자식'이라고 말한다고 한다. 현대 국어에서 어린 돼지를 가리킬 때 '아기 돼지, 새끼 돼지' 등으로 말하는 것도 이러한 방식에 해당된다.

두 번째 방식은 한자어나 외래어를 이용하여 빈자리를 채우는 방식이다. 무지개의 색채를 나타내는 현대 국어의 어휘 체계는 '빨강-주황-노랑-초록-파랑...'인데 이 중 '빨강, 노랑, 파랑'은 고유어이지만 '빨강과 노랑의 중간색', '푸른 빛깔과 같이 푸른 빛을 약간 띤 녹색' 등을 나타내는 고유어는 없기 때문에 한자어 '주황(朱黃)'과 '초록(草綠)' 등이 쓰이고 있다.

세 번째 방식은 상의어로 하의어의 빈자리를 채우는 방식이다. '누이'는 원래 손위와 손아래를 모두 가리키는 단어인데, 손위를 의미하는 '누나'라는 단어는 따로 있으나 '손아래'만을 의미하는 단어는 없어서 상의어인 '누이'가 그대로 빈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후 의미 구별을 위해 손아래를 의미하는 '누이동생'이 생겨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누이'는 상의어로도 쓰이고, 하의어로도 쓰인다.

1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지금의 '돼지'를 의미하는 말이 예전에는 '돌'이었고, '돌'에 '-아지'가 붙어 '돌의 새끼'를 의미하는 '도야지'가 쓰였다. 그런데 현대 국어의 표준어에서는 '돌'이 사라지고, '돌'의 자리를 '도야지'의 형태가 바뀐 '돼지'가 차지하게 되었다.

- ① '예전'의 '도야지'에 해당하는 개념이 지금은 사라졌다.
- ② '예전'의 '돌'은 '도야지'의 하의어로, 의미가 더 한정적이다.
- ③ 지금의 '돼지'와 '예전'의 '도야지'가 나타내는 개념은 다르다.
- ④ 지금의 '어린 돼지'에 해당하는 어휘적 빈자리는 '예전'부터 있었다.
- ⑤ '예전'의 '도야지'의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 지금은 하나의 고유어 단어가 사용된다.

12. 윗글의 어휘적 빈자리가 채워지는 방식이 적용된 사례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학생 1은 할머니 휴대 전화에 번호를 저장해 드리면서 할머니의 첫 번째, 네 번째 사위는 각각 '만사위', '막넛사위'라고 입력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사위를 구별하여 가리키는 단어가 없어 '둘째 사위', '셋째 사위'라고 입력하였다.

ㄴ. 학생 2는 '핑'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때 핑의 하의어로 수평에 해당하는 '장끼'와 임핑에 해당하는 '까투리'는 알고 있었지만, 핑의 새끼를 나타내는 단어를 몰라 국어사전에서 고유어 '꺼병이'를 찾아 사용하였다.

ㄷ. 학생 3은 태양계의 행성을 가리키는 어휘 체계인 '수성-금성-지구-화성...'을 조사하면서 '금성'의 고유어로 '셋별'과 '개밥바라기'가 있음을 알았는데, '개밥바라기'라는 단어는 생소하여 '셋별'만을 기록하였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11. ③ / 12. ①

문법 1세트 2020 06

13.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중세 국어에서는 의문문의 종류에 따라 종결 어미나 보조사가 달리 쓰인다. 예를 들면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결합하여 서술어가 될 때 판정 의문문에서는 종결 어미 '-너', 설명 의문문에서는 종결 어미 '-뇨'가 쓰인다. 반면, 체언에 보조사가 결합하여 서술어가 될 때 판정 의문문에서는 보조사 '가', 설명 의문문에서는 보조사 '고'가 쓰인다. 그런데 주어와 2인칭일 때에는 의문문의 종류와 관계없이 종결 어미 '-나'가 쓰인다. 중세 국어 의문문의 예는 아래와 같다.

○ 이 일후미 (㉠)
[이 이름이 무엇인가?]

○ 네 엇데 아니 (㉡)
[네가 어찌 안 가는가?]

○ 그되는 보디 (㉢)
[그대는 보지 않는가?]

- | | | | |
|---|-----|-----|--------|
| | ㉠ | ㉡ | ㉢ |
| ① | 므스고 | 가느뇨 | 아니 호느다 |
| ② | 므스고 | 가는다 | 아니 호느다 |
| ③ | 므스고 | 가느뇨 | 아니 호느너 |
| ④ | 므스가 | 가는다 | 아니 호느다 |
| ⑤ | 므스가 | 가느뇨 | 아니 호느너 |

14.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풀잎[풀립] ㉡ 읍네[읍네] ㉢ 벼흫이[벼홀치]

- ① ㉠, ㉡에서는 음운 변동이 각각 세 번씩 일어났군.
- ② ㉠, ㉡에서는 인접한 자음과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군.
- ③ ㉠에서 첨가된 음운과 ㉡에서 탈락된 음운은 서로 다르군.
- ④ ㉠, ㉢에서는 음운 개수가 달라지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군.
- ⑤ ㉠은 '크'로 인해, ㉢은 모음 'ㅣ'로 인해 동화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군.

15.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예끼리 묶인 것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선생님의 설명]
여러분, '쓰이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우선 '쓰이다'는 피동사이기도 하고 사동사이기도 하므로 이를 구별해야겠죠? 또한 '쓰다'는 동음이의어나 다의어이므로 그 의미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단어를 이해할 때,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해야 해요. 그럼 이와 관련된 학습 활동을 해 볼까요?

[학습 활동]
다음은 국어사전의 일부이다. 제시된 단어의 의미에 유의하여 각각의 피동사와 사동사가 포함된 예를 들어 보자.

갈다¹ ㉠ [...을 ...으로] ㉡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다.

깎다 ㉠ [...을] ㉢ 값이나 금액을 낮추어서 줄이다.

물다¹ ㉠ [...에] ㉠ 가루, 풀, 물 따위가 그보다 큰 다른 물체에 둘러볼거나 흔적이 남게 되다.

물다² ㉠ [...을] ㉡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끼운 상태로 상처가 날 만큼 세게 누르다.

쓸다² ㉠ [...을] ㉠ 비로 쓰레기 따위를 밀어내거나 한데 모아서 버리다.

피동문	사동문
㉠	㉡

- ① [㉠: 학생회 임원이 새 친구로 갈렸다.
 ㉡: 삼촌이 형에게 그 텃밭을 갈렸다.
- ② [㉠: 용돈이 이달에 만 원이나 깎였다.
 ㉡: 나는 저번 실수로 점수를 깎였다.
- ③ [㉠: 내 친구는 가래떡에 꿀만 물렸다.
 ㉡: 누나는 붓에 먹물을 듬뿍 물렸다.
- ④ [㉠: 아빠가 아이 입에 사탕을 물렸다.
 ㉡: 큰형이 동네 개에게 발을 물렸다.
- ⑤ [㉠: 큰 마당의 눈이 빗자루에 쓸렸다.
 ㉡: 내 동생에게 거실 바닥만 쓸렸다.

정답: 13. ② / 14. ④ / 15. ⑤

문법 2세트 2020 09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1) 영수는 서울에서/서울에 산다.
- (2) 민수는 방에서/*방에 공부하고 있다.
- (3) 학교에서 체육 대회를 열었다.

(1)에서는 ‘에’와 ‘에서’를 다 쓸 수 있는데, 왜 (2)에서는 ‘에서’를 쓰고 ‘에’는 쓸 수 없을까? 또 왜 (3)에서는 ‘에서’를 주격 조사로 쓸 수 있을까?

‘에’와 ‘에서’는 모두 ‘장소’를 의미하는 말에 불지만, (1)에서 ‘서울’은 ‘에’가 붙어 위치를 나타내는 [지점]의 의미가 되고, ‘에서’가 붙어 행위를 하거나 일이 발생하는 [공간]의 의미가 된다. 즉, 똑같은 장소라도 지점으로 인식되면 ‘에’를 쓰고, 공간으로 인식되면 ‘에서’를 쓴다. (2)에서 ‘방에’를 쓸 수 없는 이유는 ‘공부’라는 행위를 하는 장소인 ‘방’은 지점이 아니라 공간의 의미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에’와 ‘에서’의 쓰임이 구분되는 것은 ‘에서’의 중세 국어 형태인 ‘에서’의 형성 과정에 기인한다.

중세 국어에서는 부사격 조사 ‘에/에/에, 인/의’와 ‘이시다(현대 국어 ‘있다’)의 활용형인 ‘이서’가 결합된 말들이 줄어서 ‘에서/에서/에서, 인서/의서’가 되었다. 그런데 이들은 본래 ‘이시다’를 포함하므로, 그 의미상 어떤 공간 속에 있음을 전제한다. 따라서 ‘에서/에서/에서, 인서/의서’ 앞의 명사는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졌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와 달리 이 새로운 형태가 쓰일 자리에 ‘에/에/에, 인/의’가 쓰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에/에/에, 인/의’가 현대 국어의 ‘에’와 ‘에서’의 쓰임을 모두 지니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에서/에서/에서, 인서/의서’ 앞의 명사가 어떤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공간이나 집단을 나타내면, 그 공간이나 집단 속에 있는 구성원의 행위를 그 공간이나 집단의 행위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에 따라 중세 국어에서 ‘에서/에서/에서, 인서/의서’가 주격 조사로도 쓰인 경우가 있다. 이들은 현대 국어의 ‘에서’로 이어지는데 (3)과 같은 예에서 그러한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 국어의 ‘에서’가 주격 조사로 쓰일 때에는 ‘에서’ 앞에 공간이나 집단을 나타내는 명사가 오고 유정 명사는 올 수 없다. 부사격 조사 ‘에’에 ‘서’가 붙은 ‘에서’가 주격 조사로 쓰인 것처럼 부사격 조사 ‘께’에 ‘서’가 붙은 ‘께서’도 주격 조사로 쓰인다. ‘께서’의 중세 국어 형태인 부사격 조사 ‘피서’ 역시 ‘피’와 ‘서’가 결합하여 형성되었는데, 근대 국어를 거치면서 주격 조사로 변화하여 현대 국어의 ‘께서’로 이어졌다. 중세 국어의 ‘에서’, 현대 국어의 ‘에서’와 달리 중세 국어의 ‘피서’, 현대 국어의 ‘께서’는 높임의 유정 명사 뒤에 나타난다.

1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중세 국어에서 ‘에’ 앞의 명사는 공간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었다.
- ② 현대 국어에서 ‘에’ 앞에 붙을 수 있는 명사는 ‘에서’ 앞에 붙을 수 없다.
- ③ 중세 국어의 ‘에/에/에’는 ‘인/의’와 달리 주격 조사로 쓰일 수 있었다.
- ④ 현대 국어 ‘에서’의 중세 국어 형태인 ‘에서’에서 ‘서’는 지점의 의미를 나타냈다.
- ⑤ 중세 국어 ‘에서’가 주격 조사로 쓰일 수 있었던 이유는 ‘에서’ 앞에 유정 명사가 오기 때문이다.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p style="text-align: center;">현대 국어의 예</p> <p>㉠ 그 지역에서 공룡 화석이 발견되었다.</p> <p>㉡ 정부에서 홍수 대책안을 발표하였다.</p> <p>㉢ 할머니께서 저녁 늦게 식사를 하셨다.</p>
<p style="text-align: center;">중세 국어의 예</p> <p>㉣ 一物이라도 그위에서 다 아소물 슬노라 (물건 하나라도 관청에서 다 빼앗음을 슬퍼하노라.)</p> <p>㉤ 부터피서 十二部經이 나시고 (부처님으로부터 12부의 경전이 나오고)</p>

- ① ㉠: 공간을 의미하는 ‘그 지역’에 주격 조사 ‘에서’가 붙었군.
- ② ㉡: 집단을 의미하는 ‘정부’에 주격 조사 ‘에서’가 붙었군.
- ③ ㉢: 높임의 유정 명사인 ‘할머니’에 주격 조사 ‘께서’가 붙었군.
- ④ ㉣: ‘그위에서’는 ‘그위’에 주격 조사 ‘에서’가 붙었군.
- ⑤ ㉤: 높임의 유정 명사인 ‘부터’에 부사격 조사 ‘피서’가 붙었군.

정답: 11. ① 12. ①

13.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선생님: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부정확한 발음에 대해 알아보까요? 우선 아래 표에서 부정확한 발음과 정확한 발음을 확인해 보세요.

예	찰흙이	안팎을	넋이	끝을	숲에
부정확한 발음	[찰흐기]	[안파글]	[너기]	[끄출]	[수베]

↓ ↓ ↓ ↓ ↓

정확한 발음	[찰흙기]	[안파꿀]	[넋씨]	[끄틀]	[수페]
--------	-------	-------	------	------	------

다 봤나요? 그럼 정확한 발음을 참고하여, 부정확한 발음을 하게 된 이유를 말해 볼까요?

학생: ㉠

선생님: 네, 맞아요. 그럼 이제 정확한 발음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해 보세요.

- ① ‘찰흙이’는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하고 연습해야 하는데, [찰흐기]는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하지 않고 연습을 했습니다.
- ② ‘안팎을’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연습해야 하는데, [안파글]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고 연습을 했습니다.
- ③ ‘넋이’는 연습을 하고 된소리되기를 적용해야 하는데, [너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고 연습을 했습니다.
- ④ ‘끝을’은 연습을 하고 구개음화를 적용해야 하는데, [끄출]은 구개음화를 적용하고 연습을 했습니다.
- ⑤ ‘숲에’는 거센소리되기를 적용하지 않고 연습해야 하는데, [수베]는 거센소리되기를 적용하고 연습을 했습니다.

14. <보기>의 ㉠과 ㉡을 모두 충족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보 기>

‘붙잡다’의 어간 ‘붙잡-’은 어근 ‘붙-’과 어근 ‘잡-’으로 나뉘고, ‘잡히다’의 어간 ‘잡히-’는 어근 ‘잡-’과 접사 ‘-히-’로 나뉜다. 이렇듯 어떤 말을 둘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진 두 요소 각각을 직접 구성 요소라 하는데,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되는 말을 합성어라 하고 어근과 접사로 분석되는 말을 파생어라 한다.

그런데 ㉠ 어간이 3개 이상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다. 이때 ㉡ 직접 구성 요소가 먼저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 되면 합성어이고 어근과 접사로 분석되면 파생어이다. 예컨대 ‘밀어붙이다’는 직접 구성 요소가 먼저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 되므로 합성어이다.

- ① 밤새 거센 비바람이 내리쳤다.
- ②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면 안 된다.
- ③ 차바퀴가 진흙 바닥에서 헛돌았다.
- ④ 거리에는 매일 많은 사람이 오간다.
- ⑤ 그들은 끊임없이 짓밟혀도 굴하지 않았다.

15. <보기>의 ㉠~㉣에 해당하는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학습 활동]
 겹문장은 홑문장보다 복잡한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료>에 제시된 홑문장을 활용하여 <조건>에 해당하는 겹문장을 만들어 보자.

(자료)	(조건)
• 날씨가 춥다.	㉠ 명사절을 안은 문장
• 형은 물을 마셨다.	㉡ 관형절을 안은 문장
• 동생은 얼음을 먹었다.	㉢ 부사절을 안은 문장
• 동생은 추위와 상관없다.	㉣ 인용절을 안은 문장
• 형은 동생에게 불평을 했다.	㉤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 ① ㉠: 동생은 추운 날씨에도 얼음을 먹었다.
- ② ㉡: 형은 얼음을 먹는 동생에게 불평을 했다.
- ③ ㉢: 동생은 추위와 상관없이 얼음을 먹었다.
- ④ ㉣: 형은 동생에게 날씨가 춥다고 불평을 했다.
- ⑤ ㉤: 형은 물을 마셨지만 동생은 얼음을 먹었다.

정답 : 13. ② 14. ② 15. ①

비문학 1세트 2020 06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정책 금리를 활용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앙은행은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정책 금리 인상을 통해 경기를 진정시키고자 한다. 정책 금리 인상으로 시장 금리도 높아지면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신용 공급이 축소된다. 신용 공급의 축소는 경제 내 수요를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를 진정시킨다. 반면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반대의 과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한다.

금융을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로만 보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이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 미시 건전성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금융이 직접적인 생산 수단이 아니므로 단기적일 때와는 달리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과, 자산 시장에서는 가격이 본질적 가치를 초과하여 폭등하는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효율적 시장 가설에 기인한다. 미시 건전성 정책은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예방적 규제 성격을 가진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데, 그 예로는 향후 손실에 대비하여 금융 회사의 자기자본 하한을 설정하는 최저 자기자본 규제를 들 수 있다.

이처럼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 금융 안정을, 통화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이원적인 접근 방식이 지배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이 와해되어 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접근 방식에 대한 자성이 일어났다. 이 당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이 자산 가격 버블에 따른 금융 불안을 야기하여 경제 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금융 회사가 대형화되면서 개별 금융 회사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 회사 규모가 금융 안정의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이에 기존의 정책으로는 금융 안정을 확보할 수 없고,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도 필수적인 요건임이 밝혀졌다. 그 결과 미시 건전성 정책에 ㉡ 거시 건전성 정책이 추가된 금융감독 정책과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 간의 상호 보완을 통해 경제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거시 건전성이란 개별 금융 회사 차원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차원의 위기 가능성이 낮아 건전한 상태를 말하고,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규제 및 감독 등을 포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때, 거시 건전성 정책은 미시 건전성이 거시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구성의 오류'에 논리적 기반을 두고 있다.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미시 건전성 정책과는 차별화된다.

거시 건전성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 변동과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감안한 정책 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은 경기 순응성을 가진다. 즉 경기가 호황일 때는 금융 회사들이 대출을

늘려 신용 공급을 팽창시킴에 따라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이는 다시 경기를 더 과열시키는 반면 불황일 때는 그 반대의 상황이 일어난다.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정책 당국이 경기 과열기에 금융 회사로 하여금 최저 자기자본에 추가적인 자기자본, 즉 완충자본을 쌓도록 하여 과도한 신용 팽창을 억제시킨다. 한편 적립된 완충자본은 경기 침체에 대출 재원으로 쓰도록 함으로써 신용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한다.

27. 밑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 ①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금융이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다.
- ②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개별 금융 회사가 건전하다고 해서 금융 안정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③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경기 침체기에는 통화 정책과 더불어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 ④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는, 정책 금리 인하가 경제 안정을 훼손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는, 경기 변동이 자산 가격 변동을 유발하나 자산 가격 변동은 경기 변동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28.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과는 별개의 정책 수단을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한다.
- ② ㉡에서는 신용 공급의 경기 순응성을 완화시키는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
- ③ ㉠은 ㉡과 달리 예방적 규제 성격의 정책 수단을 사용하여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한다.
- ④ ㉡은 ㉠과 달리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을 감독하는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
- ⑤ ㉠과 ㉡은 모두 금융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 회사의 자기 자본을 이용한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

29. 밑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A~D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미시 건전성 정책과 거시 건전성 정책 간에는 정책 수단 운용에서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경기가 (A)일 때 (B) 건전성 정책에서는 완충자본을 (C)하도록 하고, (D) 건전성 정책에서는 최소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하여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려 한다.

- | | | | | |
|---|----------|----------|----------|----------|
| | <u>A</u> | <u>B</u> | <u>C</u> | <u>D</u> |
| ① | 불황 | 거시 | 사용 | 미시 |
| ② | 호황 | 거시 | 사용 | 미시 |
| ③ | 불황 | 거시 | 적립 | 미시 |

- ④ 호황 미시 적립 거시
- ⑤ 불황 미시 사용 거시

30. 밑글과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현실에서의 통화 정책 효과는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화 정책은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경기 침체를 벗어나는 데는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 인하로 은행이 대출을 늘려 신용 공급을 확대하려 해도, 가계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었거나 기업이 투자할 대상이 마땅치 않을 경우 전통적인 통화 정책에서 기대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게 된다. 오히려 확대된 신용 공급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어 의도치 않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경제 주체들이 경기 상황에 대해 비대칭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을 ‘끈 밀어올리기(pushing on a string)’라고 부른다. 이는 끈을 당겨서 아래로 내리는 것은 쉽지만, 밀어서 위로 올리는 것은 어렵다는 것에 빗댄 것이다.

- ① ‘끈 밀어올리기’를 통해 경기 침체에 자산 가격 버블이 발생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있겠군.
- ② 현실에서 경기가 침체되었을 경우 정책 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는 경제 주체의 심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군.
- ③ ‘끈 밀어올리기’가 있을 경우 경기 침체에 금융 안정을 달성하려면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겠군.
- ④ 통화 정책 효과가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이라면 경기 침체기에는 정책 금리 조정 이외의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군.
- ⑤ 통화 정책 효과가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이라면 정책 금리 인상은 신용 공급을 축소시킴으로써 경기를 진정시킬 수 있겠군.

31. 문맥상 의미가 ㉠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나는 그 사람에게 친근감이 든다.
- ② 그는 목격자의 진술을 증거로 들고 있다.
- ③ 그분은 이미 대가의 경지에 든 학자이다.
- ④ 하반기에 들자 수출이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 ⑤ 젊은 부부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 적금을 들기로 했다.

정답: 27. ④ / 28. ③ / 29. ① / 30. ③ / 31. ②

비문학 2세트 2020 06

우리는 한 대의 자동차는 개체라고 하지만 바닷물을 개체라고 하지는 않는다. 어떤 부분들이 모여 하나의 개체를 ㉠ 이룬다고 할 때 이를 개체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일단 부분들 사이의 유사성은 개체성의 조건이 될 수 없다. 가령 일란성 쌍둥이인 두 사람은 DNA 염기 서열과 외모도 같지만 동일한 개체는 아니다. 그래서 부분들의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 그 조건으로 흔히 제시된다. 하나의 개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은 외부 존재가 개체에 영향을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한 방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상이한 시기에 존재하는 두 대상을 동일한 개체로 판단하는 조건도 물을 수 있다. 그것은 두 대상 사이의 인과성이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강한 인과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세포 분열로 세포가 교체되는 과정을 통해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또 '나'가 세포 분열을 통해 새로운 개체를 생성할 때도 '나'와 '나의 후손'은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비록 '나'와 '나의 후손'은 동일한 개체는 아니지만 '나'와 다른 개체들 사이에 비해 더 강한 인과성으로 연결되어 있다.

개체성에 대한 이러한 철학적 질문은 생물학에서도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된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위는 세포이다. 세포는 생명체의 고유한 유전 정보가 담긴 DNA를 가지며 이를 복제하여 증식하고 번식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DNA를 후세에 전달한다. 세포는 사람과 같은 진핵생물의 진핵세포와, 박테리아나 고세균과 같은 원핵생물의 원핵세포로 구분된다. 진핵세포는 세포질에 막으로 둘러싸인 핵이 ㉢ 있고 그 안에 DNA가 있지만, 원핵세포는 핵이 없다. 또한 진핵세포의 세포질에는 막으로 둘러싸인 여러 종류의 세포 소기관이 있으며, 그중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활동에 필요한 생체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관이다. 대부분의 진핵세포는 미토콘드리아를 필수적으로 ㉣ 가지고 있다.

이러한 미토콘드리아가 원래 박테리아의 한 종류인 원생미토콘드리아였다는 이론이 20세기 초에 제기되었다. 공생발생설 또는 세포 내 공생설이라고 불리는 이 이론에서는 두 원핵생물 간의 공생 관계가 지속되면서 진핵세포를 가진 진핵생물이 탄생했다고 설명한다. 공생은 서로 다른 생명체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며, 서로 다른 생명체를 가정하는 것은 어느 생명체의 세포 안에서 다른 생명체가 공생하는 '내부 공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공생발생설은 한동안 생물학계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 미토콘드리아의 기능과 대략적인 구조, 그리고 생명체 간 내부 공생의 사례는 이미 알려졌지만 미토콘드리아가 과거에 독립된 생명체였다는 것을 쉽게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한 생명체가 세대를 이어 가는 과정 중에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종이 진화하고 분화한다고 보는 전통적인 유전학에서 두 원핵생물의 결합은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전자 현미경의 등장으로 미토콘드리아의 내부까지 세밀히 관찰하게 되고, 미토콘드리아 안에는 세포핵의 DNA와는 다른 DNA가 있으며 단백질을 합성하는 자신만의 리보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 밝혀지면서 공생발생설이 새롭게 부각

되었다.

공생발생설에 따르면 진핵생물은 원생미토콘드리아가 고세균의 세포 안에서 내부 공생을 하다가 탄생했다고 본다. 고세균의 핵의 형성과 내부 공생의 시작 중 어느 것이 먼저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고세균은 세포질에 핵이 생겨 진핵세포가 되고 원생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가 되어 진핵생물이 탄생했다는 것이다. 미토콘드리아가 원래 박테리아의 한 종류였다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 박테리아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는 이미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의 '이분 분열'을 통해서만 ㉦ 만들어진다. 미토콘드리아의 막에는 진핵세포막의 수송 단백질과는 다른 종류의 수송 단백질인 포린이 존재하고 박테리아의 세포막에 있는 카디오리핀이 존재한다. 또 미토콘드리아의 리보솜은 진핵세포의 리보솜보다 박테리아의 리보솜과 더 유사하다.

미토콘드리아는 여전히 고유한 DNA를 가진 채 복제와 증식이 이루어지는데도, 미토콘드리아와 진핵세포 사이의 관계를 공생 관계로 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 생명체가 서로 떨어져서 살 수 없더라도 각자의 개체성을 잃을 정도로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지 않다면 그 둘은 공생 관계에 있다고 보는데, 미토콘드리아와 진핵세포 간의 유기적 상호작용은 둘을 다른 개체로 볼 수 없을 만큼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미토콘드리아가 개체성을 잃고 세포 소기관이 되었다고 보는 근거는, 진핵세포가 미토콘드리아의 증식을 조절하고, 자신을 복제하여 증식할 때 미토콘드리아도 함께 복제하여 증식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미토콘드리아의 유전자의 많은 부분이 세포핵의 DNA로 옮겨 가 미토콘드리아의 DNA 길이가 현저히 짧아졌다는 것이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은 세포핵의 DNA로부터 합성되고, 미토콘드리아의 DNA에 남은 유전자 대부분은 생체 에너지를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예컨대 사람의 미토콘드리아는 37개의 유전자만 있을 정도로 DNA 길이가 짧다.

비문학 2세트 2020 06

37. 밑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체성과 관련된 예를 제시한 후 공생발생설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비교하고 있다.
- ② 개체에 대한 정의를 제시한 후 세포의 생물학적 개념이 확립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 ③ 개체성의 조건을 제시한 후 세포 소기관의 개체성에 대해 공생발생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④ 개체의 유형을 분류한 후 세포의 소기관이 분화되는 과정을 공생발생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⑤ 개체와 관련된 개념들을 설명한 후 세포가 하나의 개체로 변화하는 과정을 인과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38.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사성은 아무리 강하더라도 개체성의 조건이 될 수 없다.
- ② 바닷물을 개체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는 유기적 상호작용이 약하기 때문이다.
- ③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를 복제하기 위해서는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 ④ 미토콘드리아의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은 미토콘드리아의 막을 통과하여 세포질로 이동해야 한다.
- ⑤ 진핵세포가 되기 전의 고세균이 원생미토콘드리아보다 진핵세포와 더 강한 인과성으로 연결되어 있다.

39. 밑글을 참고할 때,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진핵세포가 세포 소기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 ② 공생발생설이 당시의 유전학 이론에 어긋난다는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 ③ 한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의 세포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 ④ 미토콘드리아가 진핵세포의 활동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 ⑤ 미토콘드리아가 자신의 고유한 유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40. <보기>는 진핵세포의 세포 소기관을 연구한 결과들이다. 밑글을 바탕으로 할 때, 각각의 세포 소기관이 박테리아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 ㉠. 세포 소기관이 자신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이분 분열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 세포 소기관이 자신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진핵세포의 리보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 세포 소기관이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과 막에는 수송 단백질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 ㉣. 세포 소기관이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과 막에는 다량의 카디오리핀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41.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복어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신경 독소를 가지고 있지만 테트로도톡신을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 체내에서 서식하는 미생물이 이를 생산한다. 복어는 독소를 생산하는 미생물에게 서식처를 제공하는 대신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갖게 되었다. 만약 복어의 체내에 있는 미생물을 제거하면 복어는 독소를 가지지 못하나 생존에는 지장이 없었다.
- 실험실의 아메바가 병원성 박테리아에 감염되어 대부분의 아메바가 죽고 일부 아메바는 생존하였다. 생존한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는 스스로 복제하여 증식할 수 있었고 더 이상 병원성을 지니지는 않았다. 아메바에게는 무해하지만 박테리아에게는 치명적인 항생제를 아메바에게 투여하면 박테리아와 함께 아메바도 죽었다.

- ① 병원성을 잃은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는 세포 소기관으로 변한 것이겠군.
- ② 복어의 ‘체내에서 서식하는 미생물’은 ‘복어’와의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해진다면 개체성을 잃을 수 있겠군.
- ③ 복어의 세포가 증식할 때 복어의 체내에서 ‘독소를 생산하는 미생물’의 DNA도 함께 증식하는 것은 아니겠군.
- ④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가 개체성을 잃었다면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의 DNA 길이는 짧아졌겠군.
- ⑤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와 ‘아메바’ 사이의 관계와 ‘복어’와 ‘독소를 생산하는 미생물’ 사이의 관계는 모두 공생 관계이겠군.

42.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구성(構成)한다고
- ② ㉡: 존재(存在)하고
- ③ ㉢: 보유(保有)하고
- ④ ㉣: 조명(照明)되면서
- ⑤ ㉤: 생성(生成)된다

정답: 37. ③ / 38. ④ / 39. ⑤ / 40. ② / 41. ① / 42. ④

비문학 3세트 2020 09

[27~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일까?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뜻한다. 이에 비해 소유란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A]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직접점유라고 한다. 이에 비해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사실상의 지배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반환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간접점유라고 한다.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는 모두 점유에 해당한다.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공시란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 주는 것이다. 물건 중에서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산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 ㉠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로 공시된다.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여 소유권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가 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되 사흘간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B는 A에게 피아노를 사흘 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양도인이 직접점유를 유지하지만,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점유개정이라고 한다. 한편 C가 자신이 소유한 가방을 D에게 맡겨 두어 이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가방의 소유권을 E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자. 이때 C가 D에게 통지하여 가방 주인이 바뀌었으니 가방을 E에게 반환하라고 알려 주면 D가 보관 중인 가방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C로부터 E에게로 넘어간다. 이 경우를 반환청구권 양도라고 한다.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점유 인도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점유 인도로 공시를 했다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을 '선의취득'이라 한다. 다만 간접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 선의취득으로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래 소유자는 원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반면에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등록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은 이에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다. ㉡ 법률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기 등의 동산은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이고 ㉢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이다. 이러한 고가의 재산에 대해 선의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원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거래 안전에만 치중하고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경시한 것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구조도

27. 밑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방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그 가방의 점유자이다.
- ② 가방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가방의 소유자가 아닐 수 있다.
- ③ 가방의 소유권이 유효한 계약으로 이전되려면 점유 인도가 있어야 한다.
- ④ 가방에 대해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해 주는 방법은 점유이다.
- ⑤ 가방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면 공시 방법이 갖춰지지 않아도 소유권은 이전된다.

28.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물리적 지배를 해야 동산의 간접점유자가 될 수 있다.
- ② 간접점유는 피아노 소유권에 대한 공시 방법이 아니다.
- ③ 하나의 동산에 직접점유자가 있으려면 간접점유자도 있어야 한다.
- ④ 피아노의 직접점유자가 있으면 그 피아노의 간접점유자는 소유자가 아니다.
- ⑤ 유효한 양도 계약으로 피아노의 소유자가 되려면 피아노에 대해 직접점유나 간접점유 중 하나를 갖춰야 한다.

29.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에 의해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다.
- ② ㉢은 ㉠과 달리,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가 거래 안전보다 중시되는 대상이다.
- ③ ㉣은 ㉠과 달리, 물리적 지배의 대상이 아니므로 점유로 공시될 수 없다.
- ④ ㉠과 ㉢은 모두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 ⑤ ㉠과 ㉣은 모두 점유개정으로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다.

30. 밑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갑과 을은, 갑이 끼고 있었던 금반지의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유효한 계약을 했다. 갑과 을은, 갑이 이 금반지를 보관하다가 을이 요구할 때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을은 소유권 양도 계약을 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 을은 일주일 후 병과 유효한 소유권 양도 계약을 했고, 갑에게 통지하여 사흘 후 병에게 금반지를 넘겨주라고 알려 주었다.

- ①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병이 금반지의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②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을은 갑으로부터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점유 인도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 ③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다더라도, 병은 을로부터 을이 가진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한다.
- ④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다더라도, 을은 반환청구권 양도로 병에게 점유 인도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 ⑤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다더라도, 병이 계약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31. 문맥상 의미가 ㉠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작년은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사건이 일어난 해였다.
- ② 청중 사이에서는 기쁨으로 인해 환호성이 일어났다.
- ③ 형님의 강한 의지력으로 집안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 ④ 나는 그 사람에 대해 경계심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 ⑤ 사회는 구성원들이 부조리에 맞서 일어남으로써 발전한다.

정답: 27. ⑤ 28. ⑤ 29. ② 30. ③ 31. ①

비문학 4세트 리트 2020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법률은 언어로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법조문의 의미도 원칙적으로 그 사회의 언어 문법에 따라 이해되어야 한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 법조문의 문법 단위들은 일반적 의미를 넘어서는 개념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물(物)'은 물건이나 물질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 형태소인데, '창문(窓門)'의 '창'이나 '문'같이 독자적으로 쓰일 수 있는 자립형태소가 아니라 '동화(童話)'의 '동'과 '화'처럼 다른 어근과 결합할 필요가 있는 의존형태소이다. 이 '물'의 의미가 학설과 판례에서 그리고 입법에서도 새롭게 규정되어 가는 모습을 법의 세계에서 발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압수의 대상을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으로 정하고 “압수물”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어서, 전통적으로 압수란 유체물(有體物)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런데 디지털 증거가 등장하고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변화가 일게 되었다. 디지털 증거는 유체물인 저장 매체가 아니라, 그에 담겨 있으면서 그와 구별되는 무형의 정보 자체가 핵심이다. 또한 저장 매체 속에는 특정 범죄 사실에 관련된 정보 외에 온갖 사생활의 비밀까지 담긴 일도 많다. 그리하여 정보 그 자체를 압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났고, 마침내 출력이나 복사도 압수 방식으로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었다. 민사소송에서 증거조사의 대상이 되는 문서는 문자나 기호, 부호로써 작성자의 일정한 사상을 표현한 유형물이라 이해된다. 이 때문에 문자 정보를 담고 있는 자기 디스크 등을 문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일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제374조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에 대한 규정을 두게 되었지만, 여전히 매체 중심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일찍이 정보 자체를 문서로 인정한 다른 여러 법률들과 대비된다. 최근에 제정된 법률에서는 위 조항에 대한 특칙을 두어 정보 자체를 문서로서 증거조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형법은 문서, 필름 등 물건의 형태를 취하는 음란물의 제조와 유포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판례는 음란한 영상을 수록한 디지털 파일 그 자체는 유체물이 아니므로 음란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하지만 사회 문제로 대두된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유포를 차단하기 위해 신설된 법령에서는 필름·비디오물·게임물 외에 통신망 내의 음란 영상에 대하여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규제한다. 비디오물과 게임물의 개념도 변화를 겪어 왔다. 과거에 게임 관계 법령에서 비디오물은 “영상이 고정되어 있는 테이프나 디스크 등의 물체”로 정의되었고, 게임물은 이에 포함되었다. 이후에 게임 산업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게임물에 대한 독자적 정의를 마련할 때, 유체물에 고정되어 있는지를 따지지 않는 영상물로 규정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게임물과 개념적으로 분리된 비디오물은 종전처럼 다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곧이어 관련 법령이 정비되어 이 또한 “연속적인 영상이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이라 정의하게 되었다.

판례는 또한 재산 범죄인 장물죄에서 유통이 금지된 장물의 개념을 재물, 곧 취득한 물건 그 자체로 본다. 그러면서 전기와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장물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동력에 대하여 재물로 간주하는 형법 제346조를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손괴죄에서는 준용하고 있지만, 장물죄에서는 그렇지 않다. 판례는 위 조문이 주의를 불러 일으키는 기능을 할 뿐이라 보는 것이다. 그런데 재물을 팔아서 얻은 무언가는 이미 동일성을 상실한 탓에 더 이상 장물이 아니라 하였다. 또한 물건이 아닌 재산상 가치인 것을 취득했다고 해도 그 역시 장물은 아니라고 보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 비판이 있다. 오늘날 금융 거래 환경에서 금전이 이체된 예금계좌상의 가치가 유체물인 현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언어의 의미는 사전에 쓰인 정의대로 고정되어 있지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기에 따라 항상 새롭게 규정되는 것이며, 언어를 통해 비로소 인식되는 법의 의미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구조도

1. 밑줄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디지털 정보는 그것을 담고 있는 매체와 결합되어 있다는 특성 때문에 저장 장치를 압수하는 방식으로 압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 ② 전자적 형태의 문자 정보는 문자나 기호로 되어 있지 않은 문서이기 때문에 정보 자체만을 증거조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 ③ 형법상 음란물은 유체물인 반면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무체물이란 점에서 양자의 차이가 있다.
- ④ 비디오물은 영상이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이라 정의되면서 유체물에 고정되어 있는지를 따질 필요가 없게 되었다.
- ⑤ 게임물에 관한 입법의 변천 과정은 규제의 중심이 콘텐츠에서 매체로 옮겨갔음을 보여 준다.

2. ㉠의 대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장물을 팔아서 생긴 현금을 장물죄의 적용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태도
- ② 장물의 개념을 범죄로 취득한 물건 그 자체로 한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태도
- ③ 관리할 수 있는 전기도 현행 형법상 장물죄에서 규율하는 재물로 인정한다는 태도
- ④ 은행 계정에 기록된 자산 가치에 대해서 장물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태도
- ⑤ 장물죄에서 형법 제346조의 준용이 없더라도 그 죄에서 규정하는 재물에는 동력이 포함된다는 태도

3. 밑줄을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형법 제129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 이에 대한 근래의 판결에 “뇌물죄에서 뇌물(賂物)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는 판시가 있었다.

- ① ‘뇌물’에서의 ‘물’은 사전적 의미보다 축소된 개념으로 해석되는 문법 단위이다.
- ② ‘뇌물’과 ‘장물’에서의 ‘물’은 자립형태소와 결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증거물’에서의 ‘물’과 차이가 있다.
- ③ ‘게임물’에서의 ‘물’은 물건에 한정되는 개념으로 변화함으로써 ‘뇌물’에서의 ‘물’보다 좁은 의미를 갖게 되었다.
- ④ ‘뇌물’로 보는 대상에는 재물뿐 아니라 광범위한 이익까지 인정되므로, ‘뇌물’에서의 ‘물’과 ‘장물’에서의 ‘물’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 ⑤ ‘압수물’의 개념 변화는 압수 방식을 새롭게 해석한 결과라는 점에서, ‘뇌물’에서 ‘물’의 의미 변화가 입법으로 규정한 결과라는 것과 차이가 있다.

정답: 1. ④ 2. ④ 3. ②

비문학 5세트 리트 2020

[7~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현대 생명과학의 핵심적인 키워드들 중 하나는 오믹스(omics)이다. 단일 유전자, 단일 단백질의 기능과 구조 분석에 집중하였던 과거의 생명과학과 달리, 오믹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 개체, 혹은 하나의 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전체의 집합인 '유전체'를 연구하는 유전체학, RNA 전체 즉 '전사체'에 대한 연구인 전사체학, 단백질 전체의 집합인 '단백질체'를 연구하는 단백질체학 등의 연구를 통칭한다.

분자생물학 이론에 따르면 DNA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정보의 일부만이 전사 과정을 통해 RNA로 옮겨진다. 그리고 RNA 중의 일부만이 번역 과정을 통해 단백질로 만들어진다. 어떠한 생물 개체나 어떠한 세포와 같은 특정 생명 시스템의 유전체는 그 시스템이 수행 가능한 모든 기능에 대한 유전 정보를 총괄하여 가지고 있다. 한 인간이라는 시스템과 그 인간의 간(肝)세포라는 또 다른 시스템의 유전체는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간세포와 생쥐의 간세포의 유전체는 각각 서로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한편 전사체는 유전체 정보의 일부분 즉 유전체 정보들 중 현재 수행 중일 가능성이 큰 기능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단백질체는 전사체의 일부분 즉 실제로 수행 중인 기능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 생명체에서 생화학 반응의 촉매 작용과 같은 필수적인 '일'을 직접 수행하는 물질은 단백질체를 이루는 단백질들이다.

인간에게는 2만 종 이상의 단백질이 있고, 인체의 세포들은 종류에 따라 전체 단백질 중 일부를 서로 다른 조합으로 가지고 있다. 즉 피부 세포, 신경 세포, 근육 세포 등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단백질도 있고, 한 종류의 세포에서만 발견되는 단백질도 있다. 세포는 외부의 자극이나 내재된 프로그램에 의해 한 종류에서 다른 종류의 세포로 변화하는 과정을 겪는데, 이러한 현상을 '분화'라고 한다. 분화를 통해 다른 세포로 변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단백질의 조합도 달라진다. 세포의 분화는 개체 발생 과정에서 주로 관찰되지만, 정상 세포가 암세포로 바뀌는 과정도 분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어떤 환자의 암세포와 정상 세포를 대상으로 단백질체학 응용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암세포의 단백질체와 정상 세포의 단백질체를 서로 비교해 보면, 정상 세포에 비하여 암세포에서 양이 변화되어 있는 단백질을 발견할 수 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단백질을 새로운 암 치료 표적 단백질 후보로 찾아내어 연구를 진행한다. ㉡ 암세포에서 정상 세포보다 양이 늘어나 있는 단백질은 발암 단백질의 후보가 될 수 있고, 암세포에서 정상 세포보다 양이 줄어든 단백질은 암 억제 단백질의 후보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찾아낸 단백질이 2만 종 이상의 단백질 중 어느 것인지 알아내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 단백질은 20종류의 아미노산이 일렬로 연결된 형태를 가지며, 단백질 하나의 아미노산 개수는 평균 500개 정도이다. 서로 다른 단백질은 서로 다른 아미노산 서열을 가지기 때문에 특정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을 알면 그 단백질이 어떤 단백질인지 알아낼 수 있다.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을 알기 위한 실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펩타이드의 분자량 분석이다. 미지의 단백질에 트립신을 가하여 평균 10개 정도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조각인 펩타이드로 자른 후 분자량을 측정한다. 트립신은 특정 아미노산을 인지하여 자르므로 어떤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가 잘릴 것인지 예측할 수 있다. 실제로 단백질체를 분석한 데이터는 펩타이드의 분자량 값과 펩타이드들 간의 상대적인 양을 숫자로 표현한 값으로 나타난다. 모든 인간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 아미노산의 분자량이 이미 알려져 있으므로, 암세포 단백질체와 정상 세포 단백질체에 트립신을 가하여 얻은 ㉢ 펩타이드의 분자량 분석을 통해 치료용 표적 후보 단백질을 알아낼 수 있다.

구조도

7.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신경 세포의 모든 RNA는 단백질로 번역된다.
- ② 인간 간세포의 유전체 정보는 인간 간세포의 단백질체 정보의 일부이다.
- ③ 인간 간세포의 단백질체 정보는 생쥐 간세포의 단백질체 정보와 동일하다.
- ④ 암세포는 피부나 근육의 세포와 달리 정상 세포에서 분화된 것이 아니다.
- ⑤ 암세포의 단백질체 정보는 정상 세포의 단백질체 정보와 동일하지 않다.

8. 밑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세포의 분화 과정 동안 세포의 유전체 정보는 변화하지 않는다.
- ② 어떤 단백질에 트립신을 첨가한 후에 생성되는 펩타이드들의 아미노산 서열은 동일하다.
- ③ 인간의 신경 세포와 근육 세포의 기능이 서로 다른 이유는 단백질체 정보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 ④ 어떤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을 알면 트립신 처리 후 그 단백질에서 생성될 펩타이드들의 분자량을 예측할 수 있다.
- ⑤ 어떤 단백질에서 유래한 특정 펩타이드의 양이 정상 세포에서 보다 암세포에서 더 많다면 그 단백질은 발암 단백질의 후보이다.

9. ㉠-㉢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 최초의 생명체가 DNA나 단백질은 가지고 있지 않고 RNA만 가지고 있었다면, ㉠의 설득력은 약화된다.
- ㉡. 양이 많아지면 덩어리를 이루어 오히려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단백질이 있다면, ㉠의 설득력은 약화된다.
- ㉢. 트립신을 첨가한 서로 다른 단백질에서 같은 분자량을 지닌 펩타이드가 생성된다면, ㉢의 설득력은 강화된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정답: 7. ⑤ 8. ② 9. ③

비문학 6세트 리트 2020

[13~15] 다음 글을 읽고 들음에 답하십시오.

‘좋은 세금’의 기준과 관련하여 조세 이론은 공정성과 효율성을 거론하고 있다. 경제주체들이 경제적 능력 혹은 자신이 받는 편익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공정한 세금이라는 것이다. 또한 조세는 경제주체들의 의사 결정을 왜곡하여 조세 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각종 손실 또는 비용, 즉 초과 부담이라는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왜곡을 최소화하는 세금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19세기 말 ㉠ 헨리 조지가 제안했던 토지가치세는 이러한 기준에 잘 부합하는 세금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토지 소유자의 임대 소득 중에 자신의 노력이나 기여와는 무관한 불로소득이 많다면, 토지가치세를 통해 이를 환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사용권과 처분권 그리고 수익권으로 구성되는데, 사용권과 처분권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고 수익권 중 토지 개량의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부가 환수하여 사회 전체를 위해 사용하자는 것이 토지가치세의 기본 취지이다. 조지는 토지가치세가 시행되면 다른 세금들을 없애도 될 정도로 충분한 세수를 올려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토지가치세가 토지단일세라고도 지칭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는 토지단일세가 다른 세금들을 대체하여 초과 부담을 제거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았다. 토지단일세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경제 영역에서는 자유 시장을 옹호했던 조지의 신념에 잘 부합하는 발상이었다.

토지가치세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공정성에 부합하는 세금이다. 조세 이론은 수요자와 공급자 중 탄력도가 낮은 쪽에서 많은 납세 부담을 지게 된다고 설명한다. 토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곳으로 옮길 수 없다는 점에서 비탄력적이며 따라서 납세 부담은 임차인에게 전가되지 않고 토지 소유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점에서 토지가치세는 공정한 세금이 된다. 한편 토지가치세는 초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이기도 하다. 통상 어떤 재화나 생산요소에 대한 과세는 거래량 감소, 가격 상승과 함께 초과 부담을 유발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과세하면 자동차 거래가 감소하고 부동산에 과세하면 지역 개발과 건축업을 위축시켜, 초과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토지가치세는 토지 공급을 줄이지 않아 초과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토지가치세 도입에 따른 여타 세금의 축소가 초과 부담을 줄여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G7 대상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세제 개편으로 인한 초과 부담의 감소 정도가 GDP의 14~50%에 이른다.

하지만 토지가치세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현실화되지 못했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토지가치세는 이론적인 면에서 호소력이 있으나 현실에서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토지에 대한 세금이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토지에 대한 세금이어야 하나 이러한 토지는 현실적으로 찾기 어렵다. 토지 가치 상승분과 건물 가치 상승분의 구분이 쉽지 않다는 것도 어려움을 가중한다. 토지를 건물까지 포함하는 부동산으로 취급하여 그에 과세하는 국가에서는 부동산 거래에서 건물을 제외한 토지의 가격이 별도로 인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건물을 제외한 토지의 가치 평가가 어렵다. 조세 저항도 문제가 된다.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이 거세

지면 토지가치세를 도입하더라도 세율을 낮게 유지할 수밖에 없어, 충분한 세수가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 토지가치세는 빈곤과 불평등 문제에 대한 조지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도 적절한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백 년 전에는 부의 불평등이 토지에서 비롯되는 부분이 컸지만, 오늘날 전체 부에서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19세기 말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토지 소유의 집중도 또한 조지의 시대에 비해 낮다. 따라서 토지가치세의 소득 불평등 해소 능력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오늘날 토지가치세는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데, 이는 ‘외부 효과’와 관련이 깊다. 첨단산업 분야의 대기업들이 자리를 잡은 지역 주변에는 인구가 유입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 하지만 임대료가 급등하고 혼잡도 또한 커진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부동산 소유자들은 막대한 이익을 사유화하는 반면, 임대료 상승이나 혼잡비용 같은 손실은 지역민 전체에게 전가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높은 세율의 토지가치세가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질 수 있다면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외부 효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구조도

13.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량되지 않은 토지에서 나오는 임대료 수입은 불로소득으로 여겼다.
- ② 토지가치세로는 재정에 필요한 조세 수입을 확보할 수 없다고 보았다.
- ③ 토지의 처분권은 보장되되 사용권과 수익권에는 제약을 두자고 주장하였다.
- ④ 토지가치세는 경제적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보았다.
- ⑤ 모든 경제 영역에서 시장 원리를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4. 밑줄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부가 높은 세율의 토지가치세를 도입한다면, 외부 효과로 발생한 이익의 사유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 ② 자동차세의 인상이 자동차 소비자들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자동차세는 세수 증대에 효과적일 것이다.
- ③ 토지가치세가 단일세가 되어 누진세인 근로소득세가 폐지된다면, 고임금 근로자가 저임금 근로자보다 더 많은 혜택을 얻게 될 것이다.
- ④ 조지의 이론을 계승하는 학자라면, 부가가치 생산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을 것이다.
- ⑤ 부동산에 대해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과세할 수 있다면, 토지가치세의 도입으로 토지의 공급 감소와 가격 상승 문제가 해소되어 조세 저항이 줄어들 것이다.

15. 밑줄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평가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X국은 요트 구매자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사치세를 도입하여 부유층의 납세 부담을 늘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부자들은 요트 구매를 줄이고 지출의 대상을 바꾸었다. 반면 요트 생산 시설은 다른 시설로 바꾸기 어려웠고 요트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은 대량 해고되었다. 아울러 X국은 근로소득세를 인상해서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였다.
- Y국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 소비를 줄이려는 목표로 담배세를 인상하였다. 그러나 담배세 인상으로 인한 담배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담배 소비는 거의 감소하지 않았다. 정부의 조세 수입은 크게 증가하였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 ① 공급자에게 부과되는 토지가치세와 달리, X국의 '사치세' 및 Y국의 '담배세'는 소비자에게 부과되고 있군.
- ② 초과 부담을 발생시키는 X국의 '사치세'와는 달리, Y국의 '담배세' 및 토지가치세는 초과 부담을 거의 발생시키지 않는군.
- ③ 과세 대상자 이외의 타인에게 납세 부담이 추가되는 X국의 '사치세'와 달리, Y국의 '담배세'와 토지가치세에서는 납세 부담이 과세 대상자에게 집중되는군.
- ④ 탄력도가 낮은 쪽에서 납세 부담을 지게 만들 수 있는 토지가치세와 달리, X국의 '사치세' 및 Y국의 '담배세'는 탄력도가 높은 쪽에서 납세 부담을 지게 하는군.
- ⑤ 조세 개편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X국의 '사치세' 및 Y국의 '담배세'와 달리, 토지가치세는 도입할 때 거둘 수 있는 경제 활성화 효과가 최근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군.

정답: 13. ① 14. ⑤ 15. ④

비문학 7세트 리트 2020

[25~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65년 제미니 4호 우주선은 지구 주위를 도는 궤도에서 최초의 우주 랑데부를 시도했다. 궤도에 진입하여 중력만으로 운동 중이던 우주선은 같은 궤도상 전방에 있는 타이탄 로켓과 랑데부하기 위해 접근하고자 했다. 조종사는 속력을 높이기 위해 우주선을 목표물에 향하게 하고 후방 노즐을 통하여 일시적으로 연료를 분사하였다. 하지만 이 후방 분사를 반복할수록 목표물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졌고 연료만 소모하자 랑데부 시도를 포기했다.

연료를 분사하면 우주선은 분사 방향의 반대쪽으로 추진력을 받는다. 이는 뉴턴의 제3법칙인 '두 물체가 서로에게 작용하는 힘은 항상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이다.'로 설명할 수 있다. 질량이 큰 바위를 밀면, 내가 바위를 밀는 힘이 작용이고, 바위가 나를 반대 방향으로 밀는 힘이 반작용이다. 똑같은 크기의 힘을 주고받았는데 내 몸만 움직이는 이유는 뉴턴의 제2법칙인 '같은 크기의 힘을 물체에 가했을 때, 물체의 질량과 가속도는 반비례한다.'로 설명할 수 있다. 연료를 연소해 기체를 분사하는 힘은 작용이고, 그 반대 방향으로 우주선에 작용하는 추진력은 반작용이다. 우주선에 비해 연료 기체의 질량은 작더라도 연료 기체를 고속 분사하면 우주선은 충분한 가속도를 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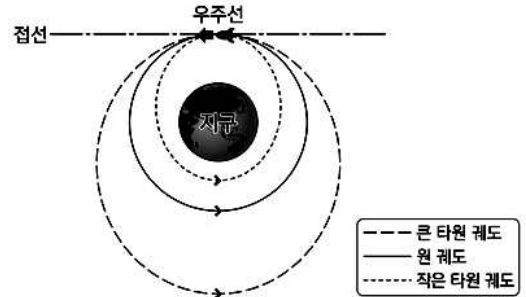
지구 궤도를 도는 우주선은 우주에 자유롭게 떠 있는 것 같지만, 기체 분사에 의한 힘 외에 중력이 작용하고 있어서 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우주선은 지구의 중력을 받으며 원 또는 타원 궤도를 빠르게 돈다. 이때 궤도를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인 주기는 궤도의 지름이 클수록 더 길다. 우주선은 속력과 관련된 운동 에너지(K)와 중력에 관련된 중력 위치 에너지(U)를 가진다.

$$K = \frac{1}{2}mv^2, U = -\frac{GMm}{r}$$

G : 만유인력 상수, M : 지구의 질량, m : 우주선의 질량
 r : 지구중심과 우주선의 거리, v : 우주선의 속력

운동 에너지는 우주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우주선의 중력 위치 에너지는 우주선이 지구에서 무한대 거리에 있으면 0으로 정의되고, 지구에 가까워지면 그 값은 작아지므로 음수이다. 즉, 우주선이 지구에 가까울수록 중력 위치 에너지는 작아지고, 멀수록 중력 위치 에너지는 커진다. 운동 에너지와 중력 위치 에너지의 합인 역학적 에너지(E)는 $E = K + U$ 로 표현된다. 지구의 중력만 작용할 때, 궤도 운동하는 우주선의 역학적 에너지는 크기가 일정하게 보존된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때, 궤도 운동하는 우주선이 지구 중심에서 멀어지면 속력이 느려지고 가까워지면 속력이 빠르게 된다. 또한 원 궤도에서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클수록 속력이 빨라진다. 우주선의 궤도는 연료 분사로 속력을 조절해 <그림>과 같이 바뀔 수 있다. 우주선이 운동하는 방향을 전방, 반대 방향을 후방이라 하자. <그림>의 원 궤도에 있는 우주선이 궤도의 접선 방향으로 후방 분사하여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키면, 그만큼 역학적 에너지도 증가하여 우주선은 기존의 원 궤도보다 지구로부터 더 멀리 도달할 수 있는 <그림>의 큰 타원 궤도로

진입한다. 하지만 전방 분사하면,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고 <그림>의 작은 타원 궤도로 진입하여 우주선은 기존보다 지구에 더 가까워진다.



<그림> 우주선의 궤도와 접선

목표물과 우주선이 같은 원 궤도에서 같은 방향으로 운동할 때, 목표물이 전방에 있는 경우, 우주선이 후방 분사를 하면 궤도의 접선 방향으로 우주선의 속력이 빨라져서 큰 타원 궤도로 진입하게 된다. 따라서 분사가 끝나면, 속력이 주기적으로 변화하고 목표물과의 거리가 더 멀어진다. 반대로, 목표물이 후방에 있는 경우 전방 분사를 하면 <그림>의 작은 타원 궤도로 진입한 우주선의 속력은 원 궤도에서보다 더 느려진 진입 속력과 더 빨라진 최대 속력 사이에서 변화한다. 이때 목표물과의 거리는 더 멀어진다.

랑데부에 성공하려면 우주선을 우리의 직관과 반대로 조종해야 한다. 우주선과 목표물이 같은 원 궤도에서 같은 운동 방향일 때 목표물이 전방에 있다고 하자. 이때 우주선이 일시적으로 전방 분사하면 속력이 느려지고, 기존보다 더 작은 타원 궤도로 진입해서 목표물보다 더 빠른 속력으로 운동할 수 있다. 하지만 궤도가 달라서, 진입한 타원 궤도의 주기가 기존 원 궤도의 주기보다 더 짧다는 것을 이용하여 한 주기 혹은 여러 주기 후 같은 위치에서 만나도록 속력을 조절한다. 목표물보다 낮은 위치에서 충분히 가까워지면, 우주선이 접근하여 랑데부한다.

구조도

25. 뒷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뉴턴의 제3법칙은 우주선 추진의 원리 중 하나이다.
- ② 원 궤도의 지름이 클수록 우주선의 속력이 더 빨라진다.
- ③ 타원 궤도 운동 중인 우주선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 ④ 우주선이 분사하는 연료 기체는 우주선보다 가속도가 크다.
- ⑤ 원 궤도에 있는 우주선이 속력을 늦추면 회전 주기가 짧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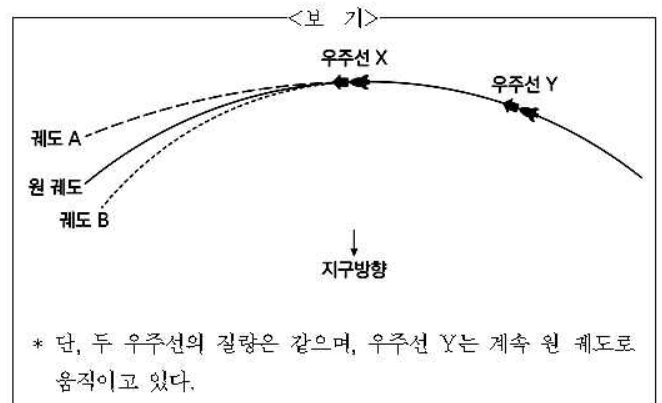
26. 뒷글을 바탕으로 추론할 때, <보기>에서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ㄱ. 제미니 4호가 원 궤도상에서 후방 분사를 한 경우라면, 후방 분사 이후의 궤도는 지구로부터 더 멀어질 수 있다.
- ㄴ. 타원 궤도에 있는 우주선의 운동 에너지 크기와 중력 위치 에너지 크기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 ㄷ. 원 궤도에 있는 우주선이 궤도의 접선 방향 분사로 역학적 에너지를 증가시키면, 진입한 궤도에서 우주선의 최대 중력 위치 에너지는 커진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7. 뒷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방 분사한 우주선 X가 진입한 궤도에서 가지는 최대 운동 에너지는 우주선 Y보다 더 크다.
- ② 우주선 X는 궤도 A에서의 최소 중력 위치 에너지가 궤도 B에서의 최소 중력 위치 에너지보다 크다.
- ③ 후방 분사한 이후의 우주선 X의 중력 위치 에너지의 최솟값은 우주선 Y의 중력 위치 에너지와 같다.
- ④ 우주선 X가 궤도 A로 진입한 경우,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동안 우주선 Y와 같은 운동 에너지를 가지는 궤도상의 지점은 하나이다.
- ⑤ 우주선 X와 우주선 Y의 가능한 거리 중 최댓값은 우주선 X가 궤도 B로 진입한 경우가 궤도 A로 진입한 경우보다 작다.

정답: 25. ② 26. ③ 27. ④

소설 읽기 1 적성의 전

츠설, 향의 비를 두루혀 도라올시 무스를 당부하여
누설치 말나하고 금뱃을 마니 주고 궤중의 드러가 보운
디, 왕과 휘 문왈

“성의 소식을 드렸느냐?”

향의 디왈

“소지 비를 타고 셔천을 향호와 칠일만의 약수가
다” 르니 일위 선관이 파초입힐 타고 오다가 소즈를 보
고 날오더 ‘그디 안평국 세자 아닌가?’ 호읍기로 소지
비레 호은즉, 선관이 이로더 ‘나는 왕즈진이러니, 셔천의
갓다가 안평국 왕즈를 맞나니 비록 일녕주를 어더스나
성의 외도의 뜻을 두어 삭발위승하고, 불경의 잠심하
여 세스를 이젓기로 헤아리미, 안평국 왕이 기다릴지라,
막춤 인간의 가는 녀노의 전호여 주마하고 가져오더니,
그디를 맞나스니 그디 성의를 심각지 말고 약을 가져다
가 밧비 쓰라!’ 호읍기로 바다왔느니라.”

하고, 일녕주를 드리거늘 왕비 일녕주를 짜희 더지고
통곡 왈

“성의는 철석지인이라! 엇지 일조의 변호리오! 연일
몽시 불길호더니 이런 연괴 잇도다!”

하고 우름을 굿치 아니호니, 향의 왈

“성의 어린 마음으로 일시 변호여스오나 나히 츠면
회심호여 도라올거시니 과렴마옵시고 약을 쓰스이다.”

호니 왕이 쏘호 위로호며 약을 가라 일환을 쓰니 덩
신이 식” 하고 병기 소삭호지라. 쏘 일환을 쓰니 심신
이 쇠락호고 스지 강건호여 빅병이 일시의 물너가되 다
만 성의를 심각호여 주야 비척호더라.

각설, 성의 호 조각 널을 의지호여스니 두 눈이 폐팅
이미 불분동서흑빅이라. 다만 바름이 녀” 호면 밤이오,
일기 호” 호면 나진줄 짐작호나 만경창파의 금슈소리도
업난지라, 삼주야만의 널넛히 다” 는 곳이 잇거늘 놀나
손으로 더드무니 이곳지 희변 암상이라. 겨우 괴여올나
정신을 수습지 못호여 바회를 의지호며 탄식 왈

“스형이 불량호여 무죄호인성을 창파중 원혼이 되게
하고 날로써 이 지경의 밋게 하고 쏘 밍인이 되여 부되
겻히 겨셔도 뇌을 기리 업게 되니 엇지 통한치 아니리
오! 그러나 모친 환휘 엇더 호시며 일녕주를 써는지 못
췌는지 이지 못호니 장츠 엇지호며, 만일 악형이 먹었
스면 모친은 속절업시 황천에 도라가시도다.”하고, 통곡
호니 무성호 디슈풀이 소리를 응호거늘 우름을 굿치고
헤오더

“무변 디희의 디소리 엇지 나리오! 분명 호 나라 짜희
로다!”

하고, 더드며 나리고져 홀 제, 오작이 지저괴는 소리

나며 손의 즈연 집히는 실패 잇거늘 먹은 즉 비부르
고 정신이 상활호지라. 인하여 바회의 나려 독님을 츠
즈가니 무성호 디밧치라. 기중의 호 디줄기 마디” ”
휘드러 독성이 요” 절” 호거늘 허리의 단검을 췌혀 그
디를 버혀 단저를 밍드러 호 곡조를 부니 그 소리 청아
호여 ” 윈여소호미 산천이 위로호여 감동호는 듯호니
이호 희상의 셔 신선의 저소리 듯고 곡조를 능통호 비
러라

(중략)

츠시 황제 다만 호낫 공주를 두어시니 명은 치란이
오, 연광이 십삼세라. 화용월터는 월궁향이 하강호 듯호
고 쏘호 지기 민첩호여 시셔와 음늘을 무불통지호니 황
제와 황휘 지극 인중호시고, 궁중이 막불흠양호더라. 한
가호 췌면 단금을 타며 혹 후원의셔 무예를 익이니 가
위 여중군지오, 규중호걸이러라.

츠시 성의 후원의 잇셔 의식은 유족호나 고국 소식이
묘연호를 슬허 왈

“셔신을 뉘 통호리오! 니 기르든 기러기 스랏는가 죽
엇는가! 만일 스랏스면 부모의 안부를 전호련마는 홀
일 업도다!”

하고, 불승비감호여 단저로 스향곡을 부니 청음이 벽
공의 스밋치며 의원쳐절호지라. 공췌 맛춤 월싯을 췌여
시녀를 다리고 완월누의 올라 유완호다가 저소리를 듯
고 옥수로 단금을 타며 츠탄왈

“기특다! 이 곡죄 왕즈진 엄군평의 곡죄니 필연 후원
의 스름이 잇셔 단저를 희롱호도다!”

하고, 시비 벽옥을 명호여 그 소리를 츠즈라 호니 벽
옥이 승명호고 즈운작으로부터 능파디의 올라 숲피니
후원의셔 호 동지 홀노 안저 ” 를 슬피 불거늘 벽옥이
압히 나아가 문왈

“선동은 엇지 심야의 자지 아니호고 단저를 희롱호는
뇨?”

성의 놀나 답왈

“나는 외국스름이라. 일월을 못보는 병인으로 슈회교
집호미 맛춤 단저를 희롱호더니 그디 엇지 못느뇨?” 벽
옥이 디왈

“나는 공주의 시비러니 공췌 완월누의 겨셔 저소리를
드르시고 츠즈라 호시기 왔노라.”

성의 디경 왈

“니 비록 밍인이나 엇지 감히 옥주 안전의 뇌오리오!
가장 불가호도다.”호거늘, 벽옥이 도라와 그 용모와 문
답언어를 낫” 치 고호니, 공췌 문득 몽스를 심각호고
왈

소설 읽기 1 적성의 전

“니 드르니 호승상이 희변의셔 단져 부는 아회를 다려다가 후원의 두었다 허더니 필연 그 아회로다. 즉시 부르라!”

하니, 벽옥이 다시 가서 성의 다려 왈

“옥췌 비록 심공의 처하시나 약간 음늘을 아르신고로 그대의 저소리 듯고져 부르시미니 스양치 말고 가미엇더호뇨?”

성의 마지 못하여 벽옥을 쓰라 완월누의 이르러 지빈하니, 공췌 즈셔히 숲혀본즉 비록 폐망이나 표 ” 혼 골격이 진짓 디장부의 기상이라. 공췌 즈리를 주고 거췌 성명을 무른디 성의 디왈

“소식은 죄악이 심중하여 부모를 실산하고 혈 ” 무의하여 전 ” 유리허더니 천형으로 호승상을 만나 거두시를 닙스와 의식은 무려호오나 즈연 신세를 심각하고 감창호와 단져로 슈회를 폐려호옵더니. 의외 옥췌겨셔 부르시니 황공무지호오며 부모 성명과 거췌는 모르옵고 다만 나흔 심삼세로소이다.”

공췌 청과의 장탄왈

“가석다! 일월을 보지 못호미여! 그대의 단져 곡죄 가장 신기호기로 청호였느니, 슈고를 앓기지 말나!”

성의 슈명하고 즉시 단져를 썬혀 월하의 슬피 부니, 슝의 마음이 즈연 감동호는지라. 공췌 탄금을 굿치고 왈

“그대 필연 범인이 아니로다! 곡죄 제치 잇스니, 품은 지조를 다하라!”

하니, 성의 디왈

“옥췌겨셔 소식의 미천호를 혐의치 아니시고 이갓치 판디하시니 은혜 망극이라! 엇지 지조를 은취호리오!”

하고, 손으로 난간을 치며 고시를 읊호니, 공췌 산호필을 드러 화전의 쓰고 빅옥셔안을 쳐 귀 ” 칭찬허더라. 공췌 옥비를 전호여 왈

“빅옥이 곤산의 못쳐쓰나 명광을 감초지 못호느니, 그대 일즉 부모 니별하다 하니 지조를 뉘게 비하겠노?”

성의 디왈

“어려서 도인을 만나 비하겠노이다.”

공췌 탄왈

“그대 전세 도덕이 높기로 금세의 저런 지조를 비웃도다!”

벽옥 왈

“옥췌의 단금과 소동의 단적이 진짓 적슈라!”

허더라.

(중략)

공췌 시녀를 명호여 가즌 성찬을 나의고 향은을 성의게 권호며 담화허더니, 문득 월식이 명낭호며 동남으로

서 외기러기 슬피우는 소기 들니거늘 성의 즈연 심시 처창호여 귀를 기우려 드러니 소리 점 ” 갓가와 등천의셔 금각당으로 도라단니며 울거늘 공췌와 좌우시네 나와 하늘을 우러 ” 슬피며 심히 고이히 여기고 성의는 혼백이 비월호여 심각호되

“이 즘성이 반드시 나의 기르던 기러긴가 보다!”

하고 어린듯 취한듯 안줏더니 기러기 두 날기를 펴고 점 ” 내려와 성의 압히 안즈며 몸을 놀이여 슬피 울거늘 성의 그제야 꽤히 본국 기러기 온 줄 알고 급히 두 손으로 기러기를 쥐고 그 등을 어루만지며 울어 왈

“이제 오든 반드시 중전이 승하호시도다!”

하고 업더져 혼절호거늘 좌우 시네 놀나 급히 구홀시, 공췌 숲혀보니 기러기 좌편 다리의 일봉셔를 밧엇거늘 글너본즉 피봉의 ‘안평국 ” 모는 아즈 성의 ” 게부치노라’하엿거늘, 공췌 기이히 여겨 날오디

“기러기 발의 봉세 달였스니, 그대는 정신을 수습호여 스연을 드르라!”

하고, 봉셔를 썬어보니 호였스되

“모년 월일의 안평국 ” 모는 읍혈호고 아즈 성의 ” 게붓치노라. 슬푸다! 나의 슬하를 썬난지 거의 괴년니라. 망 ” 혼 천지간의 어니 곳의 가 죽엇느냐 스랏느냐! 네 출천지효로 나의 병을 위호여 황당한 도스의 말을 듯고 죠흔 궁궐을 바리고 말니청과의 일신을 편슈의 붓치여 셔천의 가 악을 어더스니, 네 효성을 하늘이 감동호시미나 네 회정호는 소식이 업스니, 슬푸다! 우리 아회야! 어벌의 밤이 되었느냐! 어니 디방의 ” 지호였느냐! 네 형이 소식을 탐치코즈 하고 가더니 무슴 연관지 너는 아니오고 다만 일녕췌만 가지고 왔스며 네 형의 말을 드른즉 네 삭박위승호여 불경을 잠삼호여 부모를 바리고 부귀를 부운갓치 여긴다하니, 그 말을 가히 맞지 못호리로다. 그러호즉 너의 스싱존망을 엇지 알니오! 일녕췌를 먹은 후의 빅병이 구퇴호여 완인이 되니, 네 효성은 디순.증즈의 밧출지라. 슬푸다! 천스만탁호여도 네 형의 불효부제한 형실은 천고의 드문지라. 너를 식기호여 노중의 불측호 환을 만나 도라오지 못호미나! 월명심야의 일모황혼의 망 ” 무제한 천디를 부양호고 부르지져 슬허호 싸름이러니 일 ” 은 너 잇던 별당의 가 고적을 숲혀본즉 다만 텃쌀이 썬이고 외기러기 슬피우니 이곳 너의 기르던 즘싱인고로 경계호고 부탁호즉 이것시 슝의 심신을 요동호는지라. 구말니 창천의 지향무쳐호나 일봉셔를 붓치느니 형여 명천이 감동호샤 소식을

소설 읽기 1 적성의 전

전홀가 바라노라. 기러기 회편의 반가온 답서를 볼가
촉슈하여 만항으로 소식을 드를진디 구천의 도라가도

한이 업슬가 호노라. 만단슈회를 펴고져 하나 혈늪
몬져 가리기로 굿치노라.”

호엿더라. 성의 듯기를 다호미 가슴이 무여지고 간장
이 스는 듯호는 중의 일변 반가와 정신이 쇠락하여 밧
비 이러나 비스홀제 문득 두 눈이 번기갓치 쓰이니 구
년지수의 희빛출 본듯 침 〃칠야의 달을 만난듯 황천의
서 스라운듯 청천의 썬어오른 듯하여 상신지 몽중인지
씨닷지 못하여 도로혀 어린듯 취흔듯 정신이 황홀흔지
라. 좌중을 숲혀보니 일위 공쥬 시녀를 다리고 금슈석
상의 단좌호엿스니, 옥모화용과 교티염풍이 천하절식이
오 왕피 요지의 반도연을 비설흔듯 항의 광한누의 조희
호는듯 한번 보미 정신이 산난흔지라. 이썬 공쥬 옥수
로 봉서를 들고 그 보지 못호를 혐의치 아니하여 낭 〃
흔 소리로 흥운유수갓치 넓어 들니다가 천만 의외의 눈
을 썬 유정이 숲히믈 보미 혼박이 비월호고 믿음의 경
공하여 나숨을 드러 옥면을 가리오고 거름을 가비야이
움죽여 침소로 드러갈시, 춘란등이 썬 놀나 일시의
공쥬를 조츠가고, 등축업는 칠야의 성의 홀노 안져 그
셔간을 시로이 보니 안치 더욱 명낭하여 비록 칠야나
흔 글즈도 희미호미 업셔 지삼 보아도 분명 모친 〃필
이라. 한번 보고 두번 보미 비회교집하여 아모리 홀 쥬
를 몰나 혼 〃이 안져더니 츠시 공쥬 피하여 드러가 춘
란으로 말슴를 전하여 왈

“천고의 괴특호고 이상흔 일이 필시 오날날 밧고 업
슬 듯흔지라. 그 치하호를 측양치 못호거니와 그디 일
정 심스를 괴이시믈 아녀즈의 터되라. 그러나 이제로부
터 너외 현격하여스미 다시 모들 의논은 고스호고 전일
스를 심각호즉 조괴지심으로 더인호기 어렵도다! 바라
느니 귀체를 보증하소서!”

소설 읽기 2 아버지의 땅

노인은 밤새 총소리가 어지럽던 다음날엔 들녘이며 산 기슭에 허영게 널린 시체를 모아다 묻는 일을 해야 했다. 전쟁이 끝났고 사람들은 마을로 되돌아왔다. 그리고 이름도 고향도 모르는 그 술한 낫선 시신들을 묻었던 자리엔 해마다 키를 넘기는 잡초들이 무성하게 돌아나온 했다. 그 때문에 몇 년 동안은 누구도 아예 감자나 무 따위는 밭에 심으려고 하지 않았노라고 노인은 말했다.

누군가가 헌 타월과 신문지를 가져왔다. 노인은 뺏조각을 하나씩 집어 들고 수건으로 흙을 닦아 낸 다음 그것을 펼쳐진 신문지 위에 가지런히 정리해 놓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이치도 아마 빨갱이였겠구만. 안 그래요?”

소대장이 지휘봉의 뾰족한 끝으로 쿡쿡 찌르듯 유해를 가리키며 말했다. 인사계가 되물었다.

“어째서요.”

“산을 타고 도망치던 빨치산들이 그리 많이 죽었다잖아. 이치도 보기엔 군인은 아니었을 것 같고, 그렇다고 근처의 주민이었다면 가족이 있을 텐데 임자 없이 이리저리 팽개쳐 뒀을라구.”

“그걸 누가 압니까. 그때야 워낙 피차에 서로 죽고 죽이던 판인데…….”

그때였다. 쭈그려 앉아서 손을 움직이고 있던 노인이 불쑥 소리치는 것이었다.

“어허, 대관절…… 대관절 그게 어떻다는 얘지요. 죽어서까지 원 아무리 이렇게 죽어 누운 다음에까지 이쪽이니 저쪽이니 하고 그런 걸 굳이 따져서 무얼 하자는 말이오. 죽은 사람이 뒷을 알길래…… 죄다 부질없는 짓이지. 쯔쯔.”

노인의 음성은 낮았지만 강하고 무거웠다. 그러면서도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뺏조각에 묻은 흙을 정성스레 닦아 내고 있었다. 무슨 귀한 물건마냥 서두르는 기색도 없이 신중히 손질하고 있는 노인의 자그마한 체구를 우리는 둘러서서 지켜보았다. 모두들 한동안 입을 다물었고 나는 흙에 적혀진 노인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땅속에 누운 사람의 잠을 살아 있는 사람이 깨워서야 되겠소. 또 그럴 수도 없는 법이고. 원통한 녀이니 죽어서라도 편히 눈감도록 해야지, 암. 그것이 산 사람들의 도리요…… 하기는, 이렇게 불편한 꼴로 묶여 있었으니 그 잠인들 오죽했을까만.”

노인은 어느 틈에 꾸짖는 듯한 말투로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다. 두개골과 다리뼈를 꼼꼼히 문질러 닦은 뒤, 노인은 몸통뼈에 묶인 줄을 풀어내기 시작했다. 완강하게 묶인 매듭은 마침내 노인의 손끝에서 풀리어졌다. 금방이라도 찢겨떨어질 듯 철사줄은 싱싱하게 살아 있었다. 살을 녹이고 뼈까지도 녹슬게 만든 그 오랜 시간과 땅 밑의 어둠을 끝끝내 견뎌 내고 그렇듯 시퍼렇게 되살아 나오는 그것의 놀라운 끈질김과 냉혹성이 언뜻 소름끼치도록 무서움증을 느끼게 했다.

노인은 손목과 팔에 묶인 결박까지 마저 풀어 낸 다음 허리를 펴고 일어서더니 줄뭉음을 들고 저만치 걸어났다. 그가 허공을 향해 그것을 멀리 내던지는 순간 나는 까닭 모르게 마당가에서 하늘을 치어다보며 서 있는 어머니의 가녀린 목줄기와 그녀가 아침마다 소반 위에 떠서 올리곤 하던 하얀 물사발이 눈앞에 떠올랐다가 스러져 버리는 것이었다.

나는 담배를 피워 물었다. 멀리 메마른 초겨울의 야산이 험벗은 등을 까내놓고 죽은 듯이 엎드려 있었다. 사위는 온통 잿빛의 풍경이었다. 피잉, 현기증이 일었다.

광주리를 머리에 인 어머니가 모래밭을 걸어오고 있었다. 돌돌거리며 흐르는 물소리를 거슬러 강변 모래밭을 어머니가 혼자 저만치서 다가오고 있었다. 모래밭은 하얗게 햇살을 되받아 쏘며 은빛으로 반짝였다. 허리띠를 질끈 동인 어머니의 치맛자락이 흐느적이며 바람결에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햇살에 부신 눈을 가늘게 오므리고 줄곧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꿈속에서처럼 나는 그녀의 뒤를 바짝 따라오고 있는 한 사내의 환영을 보았다. 그건 아버지였다. 언젠가 어머니의 낡은 반단이 깊숙한 옷가지 밑에 숨겨져 있던 액자 속에서 학생복 차림으로 서 있던 그대로 그건 영광없는 그 사내였다. 나를 어머니의 뺏속에 남겨 놓은 채 어느 바람이 몹시 부는 날 밤, 산길을 타고 지리산인가 어디로 황황히 떠나가 버렸다는 사내. 창백해 보이는 뺏에 마른 몸집의 그 사내가 어머니와 함께 걸어오고 있는 것이었다. 놀란 눈으로 풀밭에 앉아 나는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윽고 어머니의 눈썹과 코, 입의 윤곽과 야윈 목줄기까지 뚜렷이 드러날 만큼 가까워졌을 때 사내의 환영은 어느 틈에 사라져 버리고 없었다. 몇 번이나 눈을 비비고 보았으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얗게 반짝이는 모래밭 위로 어머니가 찍어내는 발자국만 유령처럼 끈질기게 그녀의 발꿈치를 뒤따라오고 있을 뿐이었다.

소설 읽기 3 삼대

병화는 모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슴에 넘치었다. 분한 끝에 센터멘틀한 기분만이 아니었다.

"장개석도 결코 나쁜 놈이 아니야. 나쁘기는커녕 그놈의 본심은 오늘 알았어! 알고 보니 그만한 놈도 없어!"

병화는 젓가락을 들다가 별안간 이러 소리를 혼잣말처럼 중얼중얼한다. 경애는 뭐요? 하는 듯이 고개를 쳐들고 멀뚱히 바라본다. 이 사람이 잠꼬대를 하나? 너무 들볶여서 실성을 했다... 겁도 났다.

"그게 무슨 소리슈? 장개석이 어째요?"

"하하하..."

이제야 제정신이 든 듯이 웃는다. 병화는 여러 사람들의 심정과 사정을 생각해 보다가 거기 연달아서 무심하고 나온 말이었다.

"장개석이 몰라? 하하하..."

또 웃는다.

"무에 씩셨소? 왜 이리슈?"

경애는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며 따라 웃지 않을 수 없다.

"이 때껏 우리를 괴롭히던 장개석이 말이야? 장훈이 말이야!"

"그 사람이 장훈이래요? 장개석이야?"

두 사람은 마주 웃었다. 두 두목가는 청년은 조선에는 희성인 장가이었다. 그래서 별명이 장개석이라 한다.

"그래 장개석이가 어쩐단 말예요?"

"자식이 의문하단 말이야."

병화는 밥을 두어 젓가락 떼어 넣는다.

"무에 의문해요?"

경애는 너무나 의외의 소리에 눈이 뚱그래진다.

"우리가 결국 그놈한테 한수 넘어갔어..."

시장한 줄도 몰랐던 장위를 건드려 놓으니까, 무작정하고 들어오라는 모양이다. 젓가락도 안 드는 경애에게 권하기만 하면서 연해 퍼 넣는다.

"천천히 잡수세요. 이야기나 해가며..."

몸 아픈 사람이 체할 것도 걱정이지마는 이야기를 듣기도 경애는 급하였다.

그러나 병화는 먹기가 급하다. 밥 한 그릇을 후딱 먹고 나는 것을 보고 경애는,

"에그 체하시겠소."

하고 애를 쓰면서,

"그래 이야기를 하세요."

하고 말뉘를 채친다.

"무어?"

잇은 듯이 탄청이다.

"장개석인가 장훈인가 말예요!"

"응, 그건 그쯤만 알아두어요."

"누구를 놀리슈? 못할 말이면야 왜 애초에 꺼냈더란 말 씀요?"

경애는 병화가 그래도 자기를 못 믿고, 어느 한도 이외에는 실정을 토하지 않는 것이 늘 불만이었다.

병화는 담배만 피우고 앉았다가 가만히 누워버린다. 한 팔은 빠근하고 속으로 아프고 한 손은 쭈시고 부어올라 왔다.

"여자라고 해서 못 믿으시지만, 그런 것은 구식- 봉건사상이에요! 구태여 알자고 애를 쓰는 것도 아니지마는, 영문을 시원스럽게 알고서나 얻어맞아가며 다녀야지! 그것도 아주 처음부터 내가 관계 안한 것이면 모르지만."

경애는 토라진 수작을 하며 밥상을 내다놓고 자기 주머니에서 해태표를 꺼내어 화롯불에 뱅뱅 돌려가며 골고루 붙인다.

똑똑 똑똑... 담배 파우, 담배 파우...

남자의 목소리다. 눕고 앉고 한 사람은 귀를 세우며 마주 보았다.

"어렵지만 좀 나가보우."

말이 떨어지기 전에 경애는 벌써 방문으로 나갔다.

"무슨 담배예요?"

안에서 소리를 치며 질러놓았던 조그만 안빛장을 빼니까 빈지쪽에 달린 샛문이 밖으로 펄쩍 열리며 찬바람이 확 끼치고, 뒤미처서 꺼먼 두루마기를 입은 자가 꾸부리고 기어들어온다.

경애는 머리끝이 쭈뻛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하마터면 소리를 칠 뻔하였다.

거기에 미소를 띠고 우뚝 선 사람은 아까 청요릿집에서 시달리고 족치던 그 무서운 청년이다--지금 병화가 금방 말하던 '장개석'이다. 장훈이다.

검정 두루마기에 꾀죄죄한 목도리를 비틀어 끼우고 흰 고무신에 중같이 덧버선목이 대님 위로 올라오게 신은 양이 변장한 형사 같으나 분명히 아까 본 그 사람이다.

사람을 놀리는 듯한 미소를 여전히 머금고 턱으로 안을 가리키며,

"김군 있나요?"

하고 제잡담하고 올라가려 한다.

소설 읽기 3 삼대

경애는 아까 병화에게 들은 말이 있는지라 다소 안심은 되나, 이 밤중에 별안간 달려든 것을 보니 그래도 미진한 것이 있단 말인가? 또 작당을 해 오지나 않을까, 하는 의심도 나서,

"가만히 계시오"

하고 제지를 하여놓고 밖에 누가 또 있나 없나를 보려고 문을 다시 열려니까, 그 동안에 병화가 부스럭부스럭 일어나 나온다.

"어서 올라오게."

병화는 놀라는 기색도 없고 그렇다고 반기는 양도 아니다.

"응, 마침 잘됐네. 올라갈 건 없고 궁금해서 잠깐 들렀네."

하고 붕대 처맨 손으로 눈을 주며,

"과히 다친 데는 없나?"

하고 웃는다. 아프냐고 물어가며 때리는 사람도 이 세상에는 있는지? 덜 다쳤다면 더 때려주마고 쫓아왔는지? 때려놓고 위문 오기란 술 먹여놓고 해장 가자 부르러 오기보다도 더 친절한 일인지?... 병화의 대답이 또 요절을 하겠다.

"나는 그만하면 겨우 연명은 되네마는, 이 동무(필순의 부친)는 갈빗대가 단 하나 부러졌다네."

하고 병화는 손가락 하나를 쳐들어 보인다.

"허허..."

'장개석'군은 염치 좋게 너털웃음을 내놓더니,

"그래 누워 있나?"

하고 묻는다.

"부러진 갈빗대는 두면 무얼 하나? 성이 가시다구 아주 빼내버리려 갔네."

"허허허..."

또 허허허...다.

"자네 소위증 안 나나? 가는 길에 의전 병원에 들러보게. 지금쯤 오려 내뺐을 테니 물고 가서 쟁여를 먹든 구워를 먹든..."

병화도 빙긋대 보인다.

"허허허... 자네 노했나?"

"노할 거야 있나마는 어린애들을 시켜서 늙은이를 그제 무슨 짓인가?"

병화는 눈을 찌푸리고 입을 삐죽해 보인다.

"게다가 백정놈들 모양으로 연장까지 가지구!"

"여보게 xx사 사람 들으리! 하지만 이 세상 놈들 쳐놓고 어떤 놈은 인백정 아닌가?"

'장개석'군은 코웃음을 치다가,

"하여간 미안하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라고 단속을 하였건만 그제 그렇게 되고 말았네그려. 하나 지난 일을 어찌나. 자아, 난 가네.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잠깐 들른 걸세. 아까 내 말대로 오해는 결코 말게."

장훈은 훌쩍 나가버렸다.

소설 읽기 3 삼대

아침에 상점으로 전화를 걸고 병화를 찾다가 필순이 받으니까, 간밤 경과를 묻고 나서 이따가 병원으로 오마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이가 오나보다 하고 기다리고 섰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와도 성이 가시고 부끄러워...

필순은 혼자 속으로 이렇게 변명을 하며 머리에서 덕기 생각을 쓱쓱 지워 버리려니까, 이번에는 덕기의 누이동생이라는 처녀가 머리에 떠오른다. 한 번도 보지는 못했으나 행복스럽게 깔깔대며, 틈 집 속을 휘젓고 다니는 곱게 꾸민 예쁜 아가씨로 상상이 되는 것이다. 고 또래의 계집애들이 모여 서서 널을 뛰고 발각 뒤집으며 노는 양이 눈에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

-어떻게 팔자가 좋으면 일생을 그렇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지내누?

부러운 듯이 이런 생각을 한 것조차 부끄러운 듯이 얼굴이 빨개지며, 그 생각도 잊어버리려 하였다. 아버지와 김 선생이 좌우에 서서 '지각 없는 못생긴 소리 작작해!' 하고 소리를 치는 것 같아서 정신이 반짝 들며 병실 문편을 해죽 돌려다 보았다. 부친의 음성이 분명히 들리는 것 같아서, 가까이 가서 방문을 가만히 열어보니, 세 개가 놓인 침대 중에 저편 창문 밑으로 누운 부친은 그대로 자는 모양이요, 다른 병인들의 하얗게 썬 얼굴들만 이리로

향하여 기웃한다. 필순은 문을 곱게 닫고 섰던 자리로 다시 와서 선다.

-하루에 입원료가 3원씩, 한 달이면 90원... 하루에 팔리는 것이 처음이라 그런지 5원 어치나 될까말까한데, 게다가 몇 식구씩 매달려서 먹고, 입원료 치르고... 이익은 고사하고 이러다가는 밑천째 들어먹겠다...

필순의 생각은 또다시 어두워 들어갔다.

-어쨌든 이불이나 한 채 어서 만들었으면...

필순이 한시가 급해서 애절을 하는 것은 부친의 금침이다. 부친이 삼동을 난 때 문은 백지장 같은 차렵이불을 들쓰고 누운 양은 차마 볼 수가 없다. 남 볼상에도 얼굴이 뜨뜻하고 창피하다. 병원 이불을 한 채 주마고는 하는데, 뒤집어씌우는 껍질을 빨리 가서 오지 않았으니 조금만 참으라는 것이다. 게다가 먼저 들어온 사람이 좋은 자리를 차지해서 한데로 난 창말이라 외풍이 심하다. 병화가 아까 와서 보고 이불이 추울 테니 자기 것을 가져다가 더 덮어드리라고 하더란 말을 모친이 집에 와서 하나, 다다밋방에서 자느라고 일전에 일본 이불 한 채를 사다가 며칠 덮지도 않은 것을 염치없이 갖다가 더럽힐 수도 없지마는, 당장 병화는 무얼 덮으라고 가져올까... 필순은 꿈꿨으면서 입 속으로 돈! 돈! 할 뿐이다.

-저러다가 고뿔이나 들리셔서 폐렴이 되고 더치시면 어찌누?... 겁이 펴쩍 난다. 상여 뒤에 따라가는 자기 모양이 눈앞에 떠오른다. 눈물이 핑 돌며 고개를 흔들었다. 그러자 유리창에 물이 묻었는지 눈에 눈물이 가렸는지 어른어른하며 비스듬히 아래로 양복 입은 덕기가 종친부 다리를 건너서려는 것이 내려다보인다.

가슴의 피가 머리로 쭉 솟는 것을 애써 가라앉히며 필순이 눈물을 살짝 씻고 내려다보니, 덕기는 벌써 다리를 건너 섰다. 여기서 먼저 알은 체를 할까 하다가 그만두어버렸다. 유리창을 열고 손짓을 하여 보이며 반기는 웃음이 인사 한 마리라도 내려보내고, 아래서는 되받아 올려 치치고 하면 그 얼마나 운치 있는 일이요 유쾌한 일이라마는 지금의 자기 처지는 그러한 화려한 행동을 막는 것을 필순은 잘 요량하고 달뜨려는 제 마음을 견잡았다.

웃음 한 번이라도 절제를 하는 것은 자기 부친이 병석에 있어서만이 아니다. 신분이 틀리고 교육이 다르고 빈부가 갈리고 그리고 계급이 나뉜 그 사람에게 함부로 웃어 보이고 따르는 눈치를 보이는 것은 아양이나 부리는 노는 계집 같을까 하여, 필순의 자존심이 허락지를 않는다. 그러나 저편이 고맙게 구는 것이 고맙지 않은 게 아니요, 그와 지체와 재산과 교양을 벗어놓은 덕기란 사람만은 어딘지 모르게 우아하고 탐탁하고 언제 보나 반가운 것을 또 어찌하랴. 필순은 언제든지 반갑고 기꺼운 웃음이 눈매와 입가에서 피어나오다가는 무슨 바늘 끝이 옆구리를 꼭 찌르는 것처럼 살짝 감추는 것이었다. 그러나 두 번 감추면 두 번만큼, 열 번 감추면 열 번만큼 마치 흐린 날 연기 서리듯 마음에 서려서 남아 있으리라. 또 그것은 압착된 산소나 질소 같은 것이다. 고화하면 살에서 나오는 '무'처럼 일생의 고질이 되어 비지같이 뭉크러 터져 나와서 큰 흠이 질 것이요, 그대로 서려 있다면 언제든지 한 번은 폭발이 되고 말 것이다.

병원 문 앞까지 다가온 덕기는 벌써 알아보고 위층을 쳐다보며 웃는다. 필순도 미소로 대답을 하고, 창 앞을 떠나서 찬찬히 층계로 향하였다. 내려가서 맞으려는 것이다.

영구조 | 수 능 국 어

Tel. 010-9843-6511